

서울대 세계 47위 랭크

영국 '더 타임즈' 2009 대학평가
석학·학문 분야에선 25~30위권

모교 서울대가 2009년 영국 'The Times'와 교육관련 다국적 기업 QS가 공동조사한 세계 대학평가에서 47위에 올라 작년에 이어 세계 50대의 우수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1위는 하버드 대학이 차지했고, 캠브리지 대학, 예일대학이 2, 3위에 올랐다.

아시아 대학 중에는 동경대(22위)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서울대외에 칭화대(49위)등이 50대 대학에 들었다.

서울대는 세계 석학평가에서 25위에 올랐고, 학문 분야별로는 생명과학 24위, 공학 27위, 자연과학 28위, 사회과학 30위, 인문·예술분야 33위로 전 분야에서 30위권 이내로 평가 받았다.

세계 석학평가는 전 세계 유명 석학 6천여 명의 대학 평가 결과를 점수화한 것으로, 학계에서는 서울대가 20위권 대학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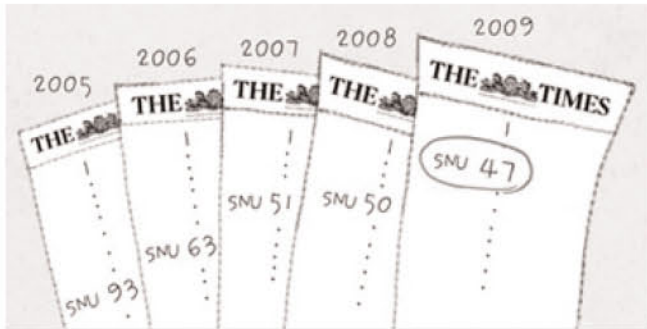
매년 세계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세계 석학평가(40%), 글로벌 인사담당자 평가(10%), 연구성과(20%), 교육지수(20%), 국제화지수(10%)로 구성된다.

평가를 실시한 첫 해에는 조사기관측의 자료 누락으로 서울대를 118위로 실재와 다르게 평가해 문제가 됐으나, 다음해부터 평가 결과를 바로 잡았다.

서울대는 2006년 63위 이후, 2007년 51위, 2008년 50위로 해마다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한편 국내 대학중 KAIST가 69위로 2위를 차지했고, 포항공대(134위), 연세대(151위), 고려대(211위)가 뒤를 이었다. <서울대 홍보부>



수 있다. 산업계의 시각을 보여 주는 글로벌 인사담당자 평가에서는 전년도에 173위에 머물렀으나 올해에는 125위로 소폭 향상했다.

'The Times'는 세계 대학 평가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평가기관으로 2004년 이후



모교 발전기금 3년간 2천4백억원 모금

'VISION 2025' 캠페인 3천억 목표대비 80% 달성

모교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약정액 기준으로 총 2천400억여원에 달하는

금액을 모금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대학중 최고 수준으로 현재까지 캠페

인 기간 목표 모금액 대비 80% 가량을 달성한 상태다.

이장무 총장은 취임 후 세계

서울대 미주 동창회 회보

발행인: 송순영(문)

주 필: 이윤모(농)

논설 위원

고병철(CH) 김일훈(CH) 김창수(NY)

김재환(WA) 장석정(CH) 남재홍(NY)

리철삼(LA) 백 순(DC) 오갑남(BC)

오기창(CH) 목길원(CH) 이석구(NY)

이청광(LA) 임승재(SF) 한창섭(NY)

편집위원: 고병철(법) 이승자(사)

조대현(공) 윤효정(사)

편집장: 이기준

10월호의 주요 기사

3. 특별기고, 오바마 의료개혁<1>

4. 김정일의 돌변된 유화정책 의미

5. 모교 개교원년을 바로잡아야 한다<2>

6. 화제의 동문, 한글전도사 이호영 교수

7. 동문의 자랑스런 후예<4>데이비드 김

8. US Wanted to get out of S. Korea

9. 한국전 참전용사인정법안 제정 비하

11. 내가 겪은 8.15 해방

13. 음악칼럼, 팝송이야기<1>

14. 모국·현지 동문소식

15~17. 지역 동창회소식(워싱턴·휴스턴·

시카고·남가주·뉴욕·북가주

18. 선배님 함께 해주세요(광고발전기금)

19. 비전2025, 3년간 2천400억원 모금

20. 고국 동문동정

21~23. 동창회비및 광고비 납부명록

24~29. 동문 업소록

30. 동문 조직

31. 동문 업소록



- 레미 구르몽 -

시몬, 나뭇 잎 저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외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낙엽은 아주 부드러운 빛깔

너무나도 나지막한 목소리를 지니고 있다

낙엽은 너무나도 연약한 포착물들의 대지위에 흩어져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황혼이 짙 무렵 낙엽의 모습은 너무나도 슬프다

바람이 휘몰아칠 때 낙엽은 정답게 소리친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땀이 났을 때, 낙엽은 영혼처럼 온다

낙엽은 날개소리, 여자의 웃자락 소리를 낸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가벼운 낙엽이 되리라

가까이 오라, 벌써밤이 되고 바람은 우리를 휩쓴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Remy de Gourmont (1858~1915),
French Symbolist poet

<표1> 캠페인 전후 기간별 약정 현황 비교
(발전기금 재단 약정만 분석)

2006.				2002.		
참여건	참여율	참여액	관계구	참여액	참여율	참여건
4,721	11.81	220억	동문	81억5천	6.09	1,030
1,080	3.65	68억2천	교수	22억3천	1.66	216
331	0.44	8억2천	학부모	13억	0.97	114
585	0.13	2억5천	교직원	1천	0.01	21
964	27.81	520억	기타관	45억	3.36	196
629	56.16	1050억	법인	1177억	87.91	263
8,310	100%	1868억	합계	1338억	100%	1,840

10위권의 초일류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0년까지 발전기금 3천억 원 모금을 목표로 모금 캠페인 'VISION2025'를 추진해 왔던

것이다.

2006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캠페인 기간과 2002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캠페인을 추진하기 3년 전 기간을 비교해보면 동문, 교수, 기타관계 등 각 집단별로 발전기금 기부가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이사장 이장무·이하 발전기금)은 국내 최초로 실시한 집중적인 모금캠페인이 기업의 거액 기부 의존도가 컸던 대학 모금을 질적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사회 전반에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19면에 계속>

특별 기고

김일훈 박사의 '오바마 의료개혁' <1>



김일훈(의대 51)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의료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세우고 개혁의 최대 포인트인 '무보험자 해소'와 '의료비 삭감'을 기필코 성취하겠다는 의욕에 차 있다.

오바마는 이를 위해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예로 들며 "참고삼아야 할 제도"라고도 평가한 바 있다.

미 의료개혁의 본질과 의료제도에 대해서 김일훈 동문의 글을 몇 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지난 1994년 클린턴 정부에서 힐러리-클린턴이 주도한 의료개혁법안(Health Security Act)은 '종업원에 대한 기업주의 보험가입 의무화'로 무보험자 해소를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NHI)을 실현코자 했으나 실패로 끝난 것이 기억에 새롭다. 당시 반대에 앞장섰던 공화당 대표는 "국도로 관료적이고 값비싼(세금 올리는) 못한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미국내 의료 무보험자는 2007년 현재 4천570만 명으로 인구의 15.3%나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

지난 7년간 미국의 의료보험료는 직장임금보다 4배(표1)나 뛰며 국민 의료비는 천정

모르게 오르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오바마 의료개혁의 윤곽 파악의 기본 요건인 미국의 '의료보험'과 '무보험자'의 내역 및 현황을 도표를 참고해서 살펴본다.

2007년도 미국인 전체 보험커버율은 표 2에 요약돼 있다.

미 의료보험의 주류는 민간보험(Private insurance)이며 가입자는 인구의 67.5%이고, 그중 직장 커버 의료보험(Employment-based) 가입자가 대부분(인구의 59.3%)이며 나머지는 개인 민간보험 가입자(Direct purchased(8.9%)다.

정부보험인 공공의료보험(Public health insurance) 수혜자는 27.8%다. 그중 메디케어(Medicare 노인 의료보험) 수혜자는 13.8%고 메디케이드(Medicaid 빈민 의료보험) 수혜자 12.9% 군인보험이 3.7%(정부보험 3가지 합계는 30.7%로 27.8%를 약간 초과한다.

이유는 중복커버가 있기 때문이고 민간플랜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65세 이상과 빈민층 합해 27%는 국민세금으로 의료혜택을 받는 셈이다.

메디케어

현재 오바마 의료정책은 민간보험에 대한 정부의 적극 간여와 더불어 정부보험(공공의료)중 특히 메디케이드의 확장을 시도중으로 공공의료 내역과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1965년 8월 미 사상 최초로 '메디케어 설립법안'에서 명한 존슨 대통령의 다음 발표문은 미국을 노인천국에 한 걸음 다가서게 했다.

"이제 미국의 노인들은 현대 의학의 혜택을 받게 됐다. 그들이 일생 동안 알뜰히 저축한 돈을 질병 때문에 모두 써버려야 할 우려도 없어지고 남은 여생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보낼 수 있게 됐다. 또

한 윤리 도덕적으로 병든 부모를 도와야 하는 젊은이들이 수입과 시간을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일도 앞으로는 없어질 것이다."

65세 이상 노령층을 커버하는 '메디케어'는 연방정부 관할로 커버 대상은 나이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구자도 포함된다.

최신(2009년도)메디케어 수혜 대상은 65세 이상 3천820만 명과 불구자(Disabled) 750만 명을 합친 4천570만 명(인구의 15.3%)이다.

메디케이드

빈민층 커버 메디케이드(Medicaid)는 연방정부가 일괄하는 '메디케어'와 달리 주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의료혜택 프로그램이다.

연방정부 부담은 50~83%에서 빈곤 주일수록 정부 부담률은 커진다.

메디케이드 커버 범위는 대개의 주에서는 FPL 100% 이하 빈민층이지만 14개 주에서는 아주 가난한 FPL 50%이하만 커버하는 등 가지각색이다.

FPL 100%(Federal Poverty Level)는 연방정부 기준 빈민수준의 수치로 알래스카와 하와이 주는 별도로 책정했다.

표 3처럼 5인 가족인 경우 연간수입 2만4천800달러 이하면 빈민레벨로 인정되며 알래스카에서는 3만1천달러 이하다.

부모가 메디케이드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적용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SCHIP(The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주 아동의료프로그램)이라 한다. 각 주에서 FPL 범위를 크게 올려 광범위하게 저소득층 아동을 커버해서 특혜주는 '메디케이드'의 일부다.

대개의 주에서는 가족수입 FPL 200%까지의 아동을 커버하며 FPL 200% 이상의 아동을 커버하는 주도 여러 곳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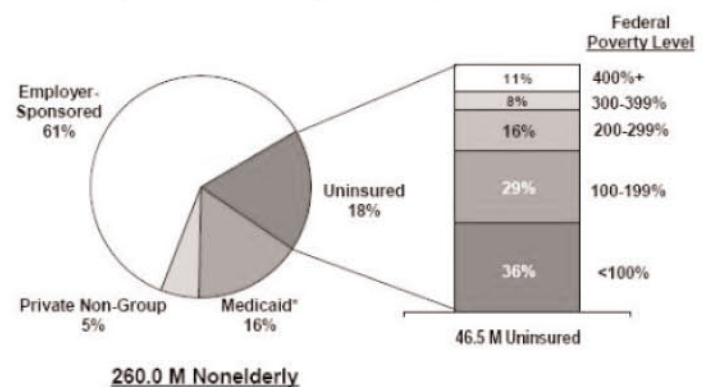
2009년도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은 5천110만 명(인구의 17%)이며 그중 SCHIP로 커버되는 아동 2천490만명과 빈민성인 1천290만명, 메디케어 수혜자중

<표3> 2007년도 미국의 의료보험 커버 현황

Persons in Family	48 States and D.C.	Alaska	Hawaii
1	\$10,400	\$13,000	\$11,960
2	14,000	17,500	16,100
3	17,600	22,000	20,240
4	21,200	26,500	24,380
5	24,800	31,000	28,520
6	28,400	35,500	32,660
7	32,000	40,000	36,800
8	35,600	44,500	40,940

<표4> 65세 이하 무보험자율과 FPL레벨별로 본 무보험자율(%)

The Uninsured -- As a Share of the Population and by Poverty Levels, 2006



빈민으로 인정돼 2중 커버되는 1천330만 명이다.

앞의 2007년도(표 2)에 비해 2009년도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크게 증가한 데는 SCHIP 프로그램이 차츰 보급돼 커버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 FPL 100% 이상의 SCHIP 대상자로 그간 커버 사실을 모르고 있다 나중 알게 돼 SCHIP에 등록하는 아동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가리킴)

무보험자

더구나 오바마 정권 이후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SCHIP 확장 법안이 가결됨으로써 FPL 300%까지의 중산층 무보험 가족 아동에게 SCHIP가 확대돼 앞으로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증가

와 함께 아동커버 비율이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무보험자(표 2의 No insurance)는 2007년도 현재 미 인구의 15.3%다.

노인 의료보험자를 제외한 2006년도 65세 이하 2억6천만 명의 보험커버 현황은 고용주 스폰서-민간보험 61%, 개인 가입 민간보험 5%, 메디케이드 16%로 의료 무보험자는 65세 미만 인구의 18%다(표 4 원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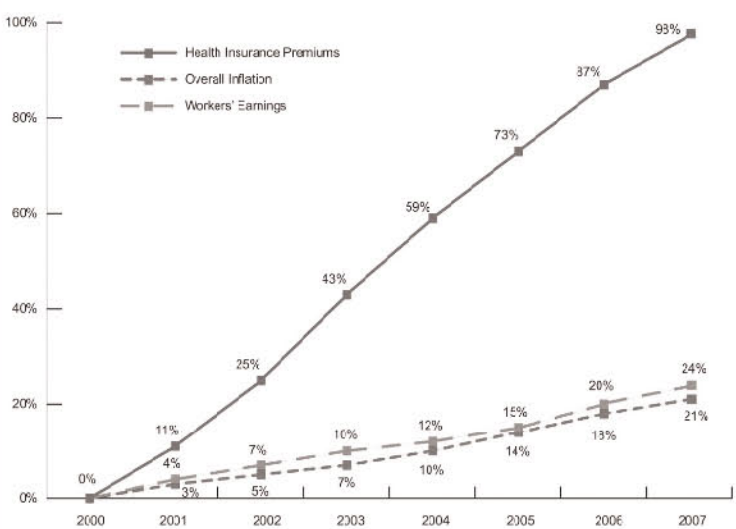
이 18%를 연방정부 보건부(HHS)에서 책정한 빈민층 레벨의 기준(FPL 100%)으로 수입계층(FPL 레벨)별로 분류했더니(표 4의 오른쪽) 저수입층일수록 무보험자가 많다는 사실이다(표 4의 오른쪽 FPL<100%는 36%, FPL 100~199%는 29% 등).

그런데 특기할만한 것은 무보험자의 11%는 경제력으로 보아 중상층(FPL 400%+)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계층들이라 이해하기 어렵다.

또 무보험자의 70%는 풀타임 직장을 가진 가족이라는 것이며, 이들 직장인들은 고용주가 보험혜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해도 높은 본인 부담금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 페이지에 계속>

<표1> 의료보험료금, 인플레이션, 고용인 수입변동(2000~2007)



<표2> 2007년 미국의 의료보험 커버율

Any private insurance	67.5% (202.0 million)
Employment-based	59.3% (177.4 million)
Direct-purchase	8.9% (26.7 million)
Any government insurance	27.8% (83.0 million)
Medicare	13.8% (41.4 million)
Medicaid	13.2% (39.6 million)
Military health care	3.7% (11.0 million)
No insurance	15.3% (45.7 million)

기고

김정일의 돌변된 유화정책의 의미와 상황



이항열(법대 57입,
Shepherd 대 석좌교수)

몇 개월 전만 해도 미사일 발사, 특히 5월에는 핵실험으로 한국과 미국에 도전장을 보낸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8월부터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이런 돌변된 정책이 이번에는 과연 한반도에 해빙기를 가져올 것인가.

한국의 대다수 신문, 특히 진보성향 신문들은 북한의 대남 대미정책이 획기적 변화를 일으켰으며 근래 악화일로에 있던 한반도 상황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으로 관계가 경색된 것처럼 비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유화정책을 택한 이유는 그들의 국내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적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국의 상황으로는 UN안보 이사회의 결의안 1874호가 과거보다 강경한 제재로 이를 탈피하기 위해 유화정책을 채택한 것이다. 1874호 결의안에 의해 PSI(핵확산 억제안보조치)가 작동된 결과 미얀마로 무기를 싣고 가던 북한 선박이 미 해군의 감시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으며 UAE(아랍 에미리트)는 이란으로 가던 북한 선박을 억류, 컨테이너를 조사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은 9월4일 외무성 명의의 플루토늄 핵무기화 방침과 우라늄 농축 성공을 발표했다. 2003년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비밀농축 실험을 지적했을 때는 “적대 세력이 사실을 날조해 농간을 부린다”고 아우성치더니 지금은 “우라늄 농축을 2003년부터 연구해 성공시켰으며 핵무기로 곧 발전시키겠다”고 UN안보리에 통고까지 했다. 이런 거짓과 위협적 반발은 또다시 그들의 상투적 벼랑끝 전술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의 국내 상황도 이런 변화를 초래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 김정일이 강경파들의 대남 대미 강경책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정책변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특히 그의 셋째 아들 김정운을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군대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그는 ‘선군정치’를 펴오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군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헌법까지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군인을 통수하는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 영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권의 소재에 노동자·농민·근로인민 이외에 이번에는 군인을 추가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중국은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중국은 추진중인 경제발전을 위해 한반도의 정세안정이 필요할 것이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은 일본의 재무장, 한국의 핵개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 세계 제2차 대전 직전 독일 뮌헨에서 독일을 유화정책으로 설복하려던 영국 수상 챔벌린의 외교는 오히려 히틀러가 동구 유럽 침략에 영국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 히틀러는 2차대전을 촉발시켰던 것이다.

다른 예로는 히틀러와 스탈린이 2차대전 바로 전 불가침 조약을 맺었으나 둘은 곧 조약을 파기한 것을 들 수 있다.

한반도에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평화 번영 정책은 좋은 의도와 이상적인 목표로 시작됐으나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위협해서 원조와 굴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

자로 통치하고 있다. 이런 마키아벨리(Machiavelli)식 수제자 김정일이 갑자기 평화주의자로 변신해 정말 경이하는 지도자로 변할 수 없다고 본다.

마키아벨리 정치 철학자는 그의 걸작 ‘Prince’에서 “군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힘(Power)’으로 힘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 목표며 최선의 통치”라고 주장했다. 많은 후세의 독재자들이 이 교훈을 실천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김정일의 현재 유화 제스처는 국내외 상황에 대한 임시적 전략 변화로 근본적 변화가 아니다. 남북관계나 남북관계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타산 등 역사 구조

북한은 현재 대량 살상무기 외에도 최근 특수부대를 18만 명으로 6만 명이나 증가시켰으며 화학무기도 대량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북정책에도 양극으로 갈라져 햇볕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면 마치 “북한과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며 몰아치는 데 한반도에서 물론 전쟁을 피한 평화 달성이 궁극적 목적이 돼야 한다.

현재 한반도에서 필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이중전략을 기정사실로 해야 하며 또한 과거 대북정책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김정일에게는 오바마나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 대화에는 응하겠지만 상투적 위협에는 굴복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안보 정책에 충실하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 등의 도발적 행동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Mid-Range Anti Ballistic Missile(중거리 요격 탄도 미사일)이나 지하 실험실 또는 핵물질 보유창고를 격파할 수 있는 Bunker Burst-Bomb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 한국도 평화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위성 발사 로켓 시스템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김정일 같은 권모술수적 독재자에게는 결국 Power의 위시가 필요하며 한미 양국도 현실적 강은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이번 북미 양자대화도 시간 벌기와 지리멸렬,또하나의 긴 여정이 예상되며 김정일은 권력 상속이 확고해질 때까지 벼랑 끝 외교를 지속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2천400만 북한 동포들이다. 그들의 인권과 고통을 잊어서는 안된다. 진보와 보수 모두 이념을 초월한 급박한 문제다.

결국 미국과 북한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냐는 것이 관건이다. 미국의 경제 회복과 이란·이라크·아프가니스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한국에서는 경제 발전과 남남갈등이 해소될 때 한반도의 평화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항열 동문

57년 법대 졸.Columbia 대 법학석사. American 대 법학박사. Johns Hopkins 대 Post Doctoral Fellowship.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근무 Debevoise,Plimpton, Lyons & Gates 근무. 재미 한인 정치학회 전 회장. 재미 한인 교수협회 전 회장. Shepherd 대 정치학과 전 과장. 석좌교수.현재 국제 한국학 연구회 이사장



북한은 오로지 ‘선군(先軍)정치’로 적화통일만 노리고 있다. 사진은 여군들의 사열 장면이다

러시아는 미국과 관계를 완화하고 오바마의 예전 그들의 동유럽 위성국가에서 미사일 방어장치를 철수한다는 정책에 호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9월에는 다이빙귀 국무위원을 북한에 특사로 보냈고 10월에는 원자바오 총리 방문에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며 2천만 달러 무상원조와 압록강에 큰 다리를 신설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북한은 중국의 압력과 원조에 대한 보답으로 미국이 원하는 6자 회담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하게 됐다.

근래 외교사를 보면 독재자들은 한결같이 유화정책의 대응보다는 강경책에 더 큰 반응을 보였다. 즉 ‘힘(Power)’에는 굴복해도 대화나 타협에는 항상 기만술수로 대응해왔다.

다고 추측할 수 있다. 북한은 계속 이런 강은의 벼랑 끝 외교를 보일 것이며 핵보유도 여전히 고집할 것이다.

북한의 목표는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근거로 미국과 군축 및 관계개선을 위한 양자 회담을 다자회담 성사 전 전제조건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들은 핵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맞바꾸는 것이 아니라 두개를 동시에 성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의 핵 보유를 인정하듯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 해달라는 것이다. 결국 김정일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가 아니라 그의 정권 유지와 이후의 정권도 아들이 계속 이끌고 나가는 것이다.

김정일은 반세기의 독재정권을 김일성에게서 물려받았고 김일성 사후 벌써 15년을 독재

적 산물로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다. 거짓말과 약속 불이행을 밥먹듯 하고 있는 김정일의 정책을 이번에도 어떻게 믿겠느냐가 근본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Grand Bargain’ 대북 제안도 이 복잡한 관계를 ‘One shot Deal’로 해결하자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실현성이 없다.

이번 북한이 약속한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 참석은 북미 양자회담 결과에 연결됐으며 심중팔구 양자회담에도 그들은 평화조약 체결 조건으로 미군 철수, 비핵화 전제조건으로 태평양 지역의 미국 핵무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이 이에 응할 확률은 거의 없으며 미국도 경제위기, 외교개혁,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문제 등으로 북한 문제는 뒷전에 두고 있다.

기획

이태진 교수(국사학)의 '국립 서울대 개교원년 재조정에 관한 연구' <2>

“모교 개교원년을 바로잡아야 한다”

고종시대 정부 주도 고등 교육기관이 서울대 모체
법관양성소·한성사범학교·의학교·농상공학교 등

1897년 10월 대한제국이 출범한 뒤 1899년에는 기술교육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즉 3월부터 의학교·중학교·상공학교 관제가 연달아 제정되고 개교했다.

1899년 7월5일 공포된 ‘의학교 규칙’은 의학교를 장차 대학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후 의학교는 대한의원 교육부·총독부 병원 부속 의학강습소-경성 의학전문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이어진다.

상공학교는 1899년 6월 15일 설립에 관한 청의서가 제출돼 6월 28일 반포됐다. 그러나 이 학교는 바로 개교되지 못하고 대신 1900년 9월4일 광무(鑒務)학교관제’가 반포됐다.

같은 해 ‘우무학당(郵務學堂)’과 전무학당(電務學堂)이 개학, 내실 운영이 이뤄졌다.

1904년 6월8일에는 1899년 관제가 정해진 상공학교를 실행하는 뜻으로 새로 ‘농상공학교 관제’를 만들어 9월부터 학생을 모집했다. 이후 농상공학교는 분화와 재편을 거듭하면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과 공과대학으로 이어졌다.

일제의 국권침탈,
고등교육기관의 왜곡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대한제국의 국권을 탈취하기 시작했다.

고종황제와 정부는 일본의 방해를 피하고자 관립학교 대신 사립학교의 설립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1905년 4월 보성(普成)전문학교의 설립은 대표적인 예다. 이 학교는 이용빈(李容燾)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황제가 재정을 지원한 왕립학교(王立學校)였다.

고종황제는 국권이 위협받아도 교육이 나라를 지킬 것이라는 신념에서 1906년 3월26일 ‘사학(私學)설립 조칙’을 따로 내려 애국 계몽운동에 열기를 더하기도 했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강제된 이후 관립 고등교육기관도 큰 동요를 겪었다. 사실상의 국권 상실을 뜻하는 이 조약이 발표되자 법관양성소의 교관들과 학생들이 반대의 뜻으로 휴업을 단행했다.

그러나 곧 소장과 교사가 일본인 또는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 바뀌었다. 1909년 11월 1일에는 법부에서 학부로 소관이 넘어가면서 법학교로 이름이 고쳐졌다.

한성사범학교는 1911년 폐지되고 관립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새로 설치된 사범과 및 부설 임시 교원양성소로 계승된 후 1921년 다시 관립 경성사범학교로 승계된다.

의학교는 1907년 3월10일 ‘대한 의원관제(醫院官制)’가 반포돼 내부병원인 광제원(廣濟院), 대한적십자병원, 육군병원 등을 통합한 대한의원(大韓醫院)의 교육부가 됐다.

이후 1909년 2월 ‘대한 의원의육부부속(醫院醫育部部屬)학교’, 1910년 총독부 의원부속 의학강습소, 1916년 경성 의학전문학교로 변천했다.

농상공학교는 1906년 9월1일 농림학교, 1907년 선린상업학

고종시대 자력으로 이뤄낸 성과를 국권을 빼앗겼다는 이유로만으로 부정한다면 이는 국내외의 명문대학 전통 계승의 관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일제 식민주의에 대한 지나친 배격 의식으로 제 것을 버리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된다. 또한 고종시

일제의 조선 교육령

대 설립된 관립 고등교육 기관들은 일제시대에도 각종 전문학교로 남아 오늘 날 서울대학교로 분명하게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일제는 1911년 8월23일 제1차

수원 농림전문학교로 승격됐다. 이처럼 일본인도 다닐 수 있는 관립 실업 전문학교는 신설 혹은 승격됐으나 종래의 사립학교 등은 폐교되거나 그 수준이 격하됐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고등교육에서 관립과 사립의 지위는 역전됐다. 이와 같이 식민지기 고등교육은 각 분야 전문학교가 설립돼 유지되는 방식이었는데 1924년 경성 제국대학이 설립된 후에도 전문학교 체제는 계속 병존했다.

실업교육 위주의 전문학교 체제는 1919년 3.1운동 이후 총독부가 학제 개정방침을 검토함으로써 변화하게 된다. 조선 교육령 개정을 위해 1921년 1

시업식이 거행됐고 5월12일 예과 수업이 개시됐으며 6월12일 예과 개교식이 거행됐다.

이 해 5월2일에는 ‘경성제국대학 관제’가 발효돼 법문학부 및 의학부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경성제대는 이후 관제 반포일인 5월2일을 ‘창립 기념일’로 삼아 기념했다.

이후 1926년 3월15일 경성제대 예과 1회 수료식이 있었고 4월1일에는 동경제대 교수 핫토리(服部宇之吉)가 경성제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경성제국대학 학부 및 학과 설치에 관한 칙령에 의해 법문학부는 법문학과·정치학과·철학과·사학과·문학과의 5개 학과로 구성하게 됐다.

1927년 법철학과와 정치학과를 통합해 법학과·철학과·사학과·문학과의 4개 학과로 줄어들었고 1929년 3월25일 경성제대는 1회 졸업생 25명을 배출했으며 1941년 이공학부가 설치됨으로써 법문학부와 의학부 중심의 학교 운영이 달라지게 됐다.

그런데 경성제국대학 설립은 조선인들이 벌인 민립대학 설립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민립대학 설립에 관한 본격적인 여론이 조성된 것은 1922년 2월3일자 동아일보 사설 ‘민립대학의 설립을 제창하노라’에서부터다.

이같은 여론에 힘입어 1922년 11월 이상제 등은 민립대학 기성 준비회를 만들었고 1923년 3월 전국 170여 군에서 1천 명 이상의 발기인을 확보한 상태로 3월29일 오후 1시 종로 중앙 청년회관에서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 발기위원회가 개최됐다.

민립대학 기성회에서는 관립대학의 설립이 곧 실현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응해 민립대학을 설립하자는 입장을 천명했다.

반드시 민립대학 설립 운동 때문에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주도하던 이상제가 경성제대 개교식에 참석하면서 경성제대를 “우리 민립대학의 개교인 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조선인들의 대학 설립에 대한 열망이 경성제국대학 설립 과정에 영향을 준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상제의 언급은 ‘언젠가 경성제대가 조선인의, 조선인을 위한 대학이 될 것’이라는 당시 조선인들의 확신과 기대를 보여준다.

<다음호에 계속>



1920년대 경성의학 전문학교의 건물 앞에서 재학생들이 촬영한 모습이다

교, 관립 공업전습소, 1908년 수의속성과 등으로 분화됐다. 이후 농림학교는 1910년 권업모범장 부속 농림학교, 1918년 수원 농림전문학교로, 관립 공업전습소는 1912년 중앙시험소 부설 공업전습소, 1916년 경성 공업전문학교 부설로 다시 개편됐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종시대에는 시종 국가(정부)가 주도하는 고등교육기관 설립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

이 때 만들어진 법관양성소, 한성사범학교, 의학교, 농상공학교 등이 일제의 식민통치 아래서도 계속 그 실체를 유지해 광복을 맞이함으로써 미 군정 아래 출범한 국립 서울대학교의 모체가 됐다.

조선 교육령을 발호해 교육방침을 밝혔는데 1910년대 총독부의 교육정책은 고등교육을 억제하고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것이다.

먼저 1911년 6월15일 조선총독부령 74호 경학원 규정을 통해 고종이 교양 중심의 근대 고등 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키려 했던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1915년 3월24일 일제는 민도(民度)와 고등 보통교육의 보급도가 높아졌다는 이유를 들어 조선 총독부령 제26호로 ‘전문학교 규칙’을 제정공포하고 1916년 4월1일부로 경성 전수학교를 전문학교로, 조선 총독부 의원부속 강습소를 그 부속으로 하게 되었다.

1918년에는 수원농림학교가

7월7일 ‘임시교육 조사위원회’에 제출된 총독부 원안에는 ‘대학 및 대학 예비교육의 길을 연다’는 구절이 삽입됐다. 총독부의 신 학제안은 주밀원의 심의를 거쳐 1922년 2월6일 ‘제2차 조선 교육령’으로 반포, 이를 통해 조선에 대학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성제국대학 설립

이후 1923년 5월3일 경성제대 예과 교사(校舍) 본관이 기공되고 12월 14일 완공됐으며 학생을 모집해 1924년 3월19일 예과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문과 90명, 이과 80명이었다. 이어 5월10일 경성제대 예과

화제의 동문

‘한글 전도사’ 언어학과 이호영 교수



로 채택된 한글 교과서로 찢아 찢아이를 읽으며 자신들의 문화를 기록 보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채거는 지난해 5월부터

“그 때가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한파에 온 몸은 얼지, 음식은 입에 맞지 않지, 가족 생각에 마음도 지치지... 결국 교사 한 명을 조기 귀국시키고 가뭇 아비딘 책과 정말 어렵게 한글교과서를 완성시켰습니다.” 이 교수는 앞으로 한글이 잘

을 보급해 철학이 있고 존경할만한 가치를 가진 나라로 인정받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 교수는 북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새터민들의 지역적응을 돕기 위해 지난 3월 노원구 공릉동에 개소한 서울 북부 하나센터에서 발음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 2015년까지 각 가정에 이러한 로봇을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가 먼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 교수는 런던대에서 음성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자신의 원직인 언어학과 교수의 길을 걷게 됐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영어학원을 몇 개월 다녔어요. 선생님께서 발음과 말하기 훈련을

가르치는 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학원에 손님이 오면 저를 불러다 놓고 영어 말하기를 시키면 곧잘 따라하곤 했죠. 그때부터 언어학에 매료됐던 것 같아요. 언어학과 첫 수업시간을 듣는 순간 운명적으로 ‘이건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했죠.”

29세에 교수 부임

“아무리 좋은 것이고, 능력이 뛰어나도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선 시기를 잘 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20살이나 더 많았다면 한글 보급작업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앞으로 10년간은 전성기라고 생각해요. 불황이지만 가장 뚜렷한 회복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부심을 갖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한글을 많이 사랑하고 보급하는 데 전 국민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10월 9일은 우리 민족의 한글날이다.

머지 않은 미래 세계 곳곳의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 한글날을 기념할 것이라는 상상만 해도 가슴 뭉클해진다. <서울대 홍보실>

인도네시아 부른섬의 원주민들 사용함
세계 최초 찢아찌아 어
한글 교과서 펴내

이 교수를 비롯한 5명의 언어 전문가들이 ‘한글 보급의 세계화에 앞장서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노력해온 결과다.

“이전에 여러 교수님들께서 태국과 중국 등의 소수민족을 찾아가 한글을 가르치고 보급에 힘썼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어요. 모두가 불가능할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오래 전부터 한글이 세계 어느 문자체계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도전장을 던지지 않았습니. 마침 인도네시아 전문가인 교수께서 바우바우시를 갔다왔다고 해요. 거기 시장도 한국 마니라고, 주민들도 한국을 좋아하니 괜찮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글교과서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코리아 센터를 만들어 한국 문화교류에 이바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안을 작성해 보냈더니 일주일만에 흔쾌히 승낙하더군요.”

이후 가장 시급한 것이 제대로 된 한글교과서였다. 민간차원에서 시작한 일이라 정부지원도 없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추운 겨울, 2명의 현지 교사와 함께 귀국했다.

정착될 수 있도록 원지에 연수회를 열어 교육을 이수한 교사를 한국에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이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언어는 있는데 글이 없는 민족이 몇 천 개에 이릅니다. 한글이 로마문자에 비해 엄청난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핸드폰으로 영어 문장 써보세요. 오타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한글로는 문자조합이 얼마나 좋죠.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것만 알지 우리 국민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글의 우수성을 실감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민족에게 한글이 보급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앞으로 그는 동남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도 한글 보급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살만큼 사는 데 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돈만 주면 감동이 없어요. 좋은 문화도 함께 전파해서 나라간 벽을 허물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죠. 좋은 문화유산

작업을 시작했다.

“새터민의 언어 적응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취업을 하고 싶어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주로 3D업종에서 열악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이라도 남한 말을 배우고 싶어서 새벽에 일어나 TV를 켜놓은 채 잠잔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이 표준어를 하루빨리 잘 구사할 수 있도록 내가 맡아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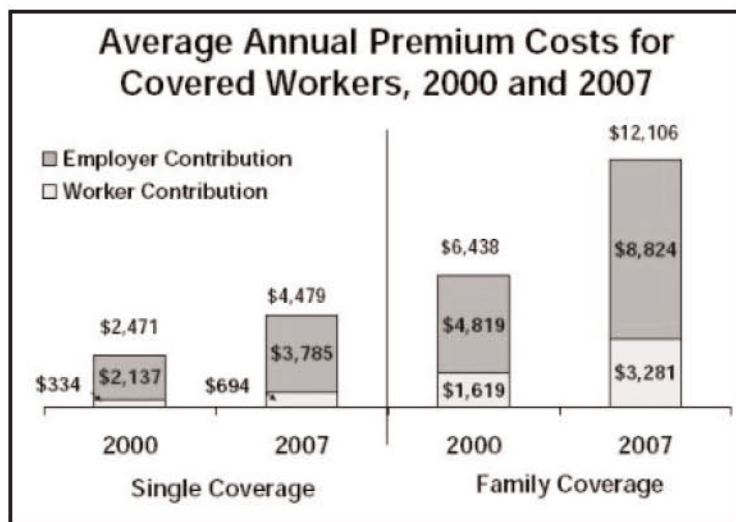
영어로 말하는
로봇도 개발

“제가 음성학 전문가라서 영어로 말하는 교육용 로봇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로봇과 직접 대화를 주고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범사업이에요. 걸어다니고, 춤도 추고, 거기에다 로봇이 영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며 초등학교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굉장한 일이죠. 이 사업이 잘만 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에 수출도 가능합니다.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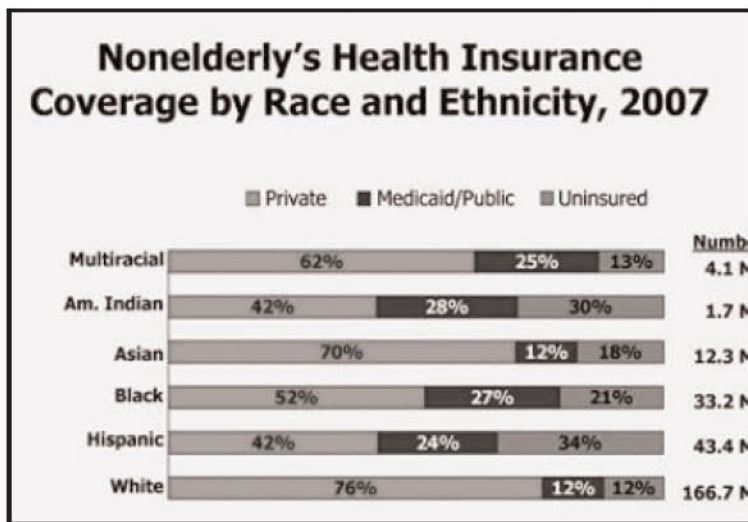
“대학시절 한글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신 허웅(許雄)교수님께서 ‘우리 민족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데, 이는 금속활자, 거북선, 그리고 한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문화유산이 사장된 채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가슴속에서 무언가 올라오더라고요. 한글을 다른 나라에 보급하는 길은 없을까? 그때부터 가진 소망이 드디어 이뤄진 셈이죠.”

한국의 문화
알리는 게 목표”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 동남부에 위치한 술라웨시주 부른섬의 바우바우시는 모교 언어학과 이호영(언어8185)교수가 이끌고 있는 훈민정음 학회와 ‘한글 보급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재 인구 6만명인 바우바우시의 찢아찌아족은 정식의



<표5> 보험 커버된 고용인에 대한 연간 평균 요금



<표6> 65세 미만의 인종별 의료보험 커버율(2007년)

(12%)에 비해 소수민족이 단연코 높아 히스패닉(남미계 34%)과 아메리칸-인디언(30%)은 그들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흑인(21%)도 상당수에 해당되고 있다(표 6).

아시아인(18%)은 백인(12%)과 혼혈인(13%) 다음으로 낮은 편이나 중류층 한국계는 훨씬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코리아타운의 개업 동포 의사들에 의하면 한국인 환자의 약 80%가 진료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무보험자라고 한다. 연간 1만2천106달러(표5)나 되는 가족 의료보험료를 감당할 여유가 없거나 감당할 여유가 있어도 가정의 우선순위 중 첫째가 자녀 교육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동포 사이에서 값비싼 진료나 수술이 필요하게 되면 한국에 나가서 받는다는 소식이다.

<다음 호에 계속>

< 3페이지 '오바마 의료개혁' 에서 계속>

지난 7년간(2000~2007) 크게 상승한 의료보험 요금(표 1)과 고용인과 고용주 부담액의 큰 증가(표 5)때문에 보험 커버를 해주지 않는 고용주와 보험가입을 허용치 않는 고용인

이 늘어남으로써 무보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표 5에서 보듯 고용주 부담액은 2000년 \$4,819에서 2007년 \$8,824, 그리고 고용인 부담액은 \$1,619에서 \$3,281로 약 2배나 증가했다. 대개의 대기업체에서는 고용주

스폰서의 보험커버가 되고 있지만 종업원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 직장 보험 가입자는 약 50%에 불과하다. 역시 이들 기업체에서는 고용주 의료보험커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보험자 해소의 첩경은 고용

주에게 고용인 보험커버를 의무화하는 '고용주 위임(Employer mandate)'을 법제화하는 것이나 과거 클린턴 정부에서 실패했던 일로 앞으로 오바마 정부에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종별로 본 무보험자는 백인



‘동문의 자랑스런 후예들’ 기획 시리즈 네번째로 ‘데이비드 김’ 교통부 부차관보를 소개합니다.

데이비드 김은 지난 6월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 교통부 부차관보로 전격 발탁해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현재 미 행정부에서 한인으로는 몇 안되는 고위 관료로 정평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김(46·김성철)은 김익창(의대 56년 졸)·그레이스 김(사대 56년 졸) 동문 부부의 2남 중 장남이다.

지난 6월 오바마 행정부가 데이비드 김에 대해 연방 교통부 부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를 제의했을 때 매우 망설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그는 LA 카운티의 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의 부국장을 맡고 있었는데 자신의 직책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모친 그레이스 김 동문은 “데이비드는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지요. 당시 정부로부터 항상 많은 예산을 따내는 등 나름대로 큰 수완을 발휘하면서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그레이스 김·김익창 동문 부부가 손자들을 안고 있다

“부모님의 평생에 걸친 봉사 모습이 제가 공직에 뛰어든 결정적 이유죠”

러나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권했어요.소수민족을 위한 봉사와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라도 가야 한다고 말이죠.”

이래서 그는 현재 보건부의 고정주 차관보, 국무부의 교통주 법률 고문 등과 함께 미 행정부의 몇 명 안되는 한인 고위관료로 일하고 있다.

데이비드 김은 1963년 5월 17일 캘리포니아에서 출생했다. 초중고교 시절에는 자연과학에 재능을 보이고 음악과 스포츠를 즐겼으나 성격은 얌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글쓰기를 좋아해 고교 시절 최초의 동포 영자신문 ‘Korea Town’에 3년간 기고하기도 했다.당시 그의 글재주를 아까워한 동포 언론인 이경원씨가 “나중에 꼭 기자가 돼 보라”고 권했을 정도였다. 이때의 글솜씨는 그가 본격적으로 공직에 진출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됐다.

그는 결국 대학 진학을 앞두고 정치학으로 진로를 바꾸고 만다. 모친 그레이스 김은 이

“그런데 그가 정치학을 택한 것은 사실은 이보다 훨씬 전의 사건도 작용했습니다. 1973년 동포사회를 뒤흔들었던 ‘이철수 사건’이지요.”

이는 1973년 21세의 LA 동포 이철수씨가 갇단 살해혐의로 사형까지 언도받았던 사건이다. 이철수는 12세에 도미해 불우환경에서 백인사회에 홀로 던져진 청소년이었다.

김익창 동문부부는 자신의 응접실에 동포인사들을 모아놓고 동포 사회 처음으로 ‘이철수 구명위원회’ 결성을 논의했던 것이다.

동포들의 구출운동으로 6월 일급 변호사가 선임되고 10월 제1사건에 관한 재판이 5년만에 다시 열렸으며 83년 무죄평결을 받게 됐다.

동포를 위해 이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며 봉사하는 부모의 열정은 어린 데이비드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기 시작했다.

또한 소수인종으로 정치력 배경이 약하면 주류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과 권익침해를 당

6월 그는 무역대표부(USTR)의 의회담당 부대표로 임명된 바 있다.게다가 그는 이듬해인 1999년 그레이스 데이비스 LA 지사의 위싱턴 DC 사무소 부디렉터를 맡아 4년간 일했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 시절 힐러리 클린턴의 헬스케어 개혁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가 오바마 행정부의 부름을 받아 전격 발탁된 것은 대선 당시 오바마 선거 캠프에서 참모로 맹활약한 것도 큰 동기가



데이비드 가족이 자리를 함께 했다.왼쪽부터 만팔 Tessa(15),데이비드, 아내 Julie, 막내 Jaisohn(13)

처분, dkwn 작은 거처로 옮긴 뒤 남은 돈 25만 달러를 모두 대학에 기증한 것으로 유명하다.남은 유산은 두 아들에게 전혀 증여하지 않은 것이다.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 4만달러를 출연해 장학재단을 만들어 불우 동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왔다. 의대 인턴 때는 월급을 털어 입양아들에게 봉사해왔다. “사람에게 나눴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이 평소 지론(持論)이다.

새크라멘토 한인회장을 지낸 부인 그레이스 김 동문 역시 마찬가지다. 무려 35년간 고교교사로 봉직하면서 빈민층 청소년 봉사활동을 계속해왔다.

데이비드 김은 부모님의 평생에 걸친 봉사와 기부정신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말보다는 실천으로 보여주라’는 부모님의 언행과 봉사 모습은 제 인생의 영원한 롤 모델입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데이비드 김의 부인 줄리 김은 서재필 박사의 손녀로 잘 알려져 있다.

“‘말보다는 실천으로 보여주라’는 부모님의 가르침과 봉사정신은 내 인생의 영원한 ‘롤 모델’입니다”

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가 고교 2학년 때 교회에서 3년마다 치러지는 청소년 대회인 ‘Youth Triennium’이 있었어요.나도 어드바이저로 참가했는데 데이비드는 여기서 지도력의 중요성에 대한 눈을 뜨게 됐지요.이로부터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되더니 결국 정치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하는가를 뼈저리게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

그는 옥시덴탈 칼리지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뒤 남가주대학(USC)에서는 행정학을 전공했다. 대학 2학년 때 동포권익보호를 위한 비영리 단체 한미연합회(KAC Korean American Coalition)서 활동한 것도 부모님으로부터 내려받은 동포들에 대한 봉사정신에서였다. 탁월한 리더십으로 곧 워싱턴 DC 캠퍼 회장을 맡아 더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같은 사회활동으로 그에 대한 명성이 자자해져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는 연방 상원의장 데이비드 로버트 의원,하원의 하비어 베세라 의원 등의 보좌관으로 발탁됐다. 여기서 교통 무역 헬스 분야의 실무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모시고 있는 의원들이 회기 중 의회에 가 있는 동안이나 바쁜 외유 중에는 언론사 인터뷰나 연설문 등은 모두 데이비드가 작성하고 처리했습니다.이 때의 탁월한 정책들과 문장력은 호소력이 아주 돋보였던 것으로 정평이 있었지요.”

그레이스 김 동문의 회고다.이같은 공적으로 지난 1998년

된 것은 사실이다. 그는 오바마 뿐만 아니라 클린턴과 교여를 위해서도 대선 캠프에서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에 임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부친 김익창 동문은 1956년 의대를 졸업한 뒤 바로 유학왔다. 그 뒤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Medicine 정신과 교수로 재직하다 2006년 은퇴후 자신의 주택을

이철수 사건

1973년 6월 3일 샌프란시스코 차이나 타운의 조폭 두목급 임이택(Yip Y Tack)이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1980년대 말부터 Waching파와 Joeboy파의 조폭간 살인 보복전으로 13번째 희생자가 나온 것이었다.

사흘 뒤 이철수(당시 21세)씨가 용의자로 체포됐는데 이는 선거를 앞둔 엘리엇 시장이 사건과 관계없는 그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증인들에 의해 재판이 진행돼 이철수는 1974년 일급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복역중이던 이철수는 1977년 감옥에서 자기를 해치려던 갱 두목과 맞서 싸우다 정당방위로 그를 죽이게 돼 다시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다.

이에 동포들은 이철수 구명위원회를 조직해 운동을 시작했다.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각 지역에 후원회를 조직해가며 재판 기금을 모금했다. 그 결과 1979년 재심명령,1983년 마침내 무죄평결을 받아냈던 것이다.

살인범 누명에 사형선고까지 받은 동포에 대해 구명운동에 나섰던 우리 동포들의 단결된 힘이 절대적으로 작용한 사례였다.





조봉완 (법대 53년 입학)

(Continued from August
8.15 Special Issue)

Cold War Sets in Korea

Patience was running out also for the two superpowers,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who had their troops in separate zones in Korea. From August through December 1945, the parallel structures of the U.N. and the spheres of influence as agreed upon in Yalta had endured, but barely. During the first three months of 1946, people around the world heard ominous warnings from both sides. In their first important post-war speeches, the heads of state of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presented to the world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ir respective country's positions.

President Truman's State of the Union Address on January 21 reflected the new theoretical basis for U.S. policies and actions, which was provided by Army Lt. Col. Edward F. Willet's paper on Dialectical Materialism and Russian Objectives. It warned that "Communism was messianic and driven, whereas capitalism was passive and lacked spiritual drive. The U.S. should take no economic action from which Russia would benefit, and should keep herself in a strong defensive position."

Truman's speech was countered by the famous February 8 speech of Josef Stalin. It was Stalin's first important post-World War II policy statement and presented the theoretical basis of future Soviet foreign policy. It was interpreted by George Kennan, then the U.S. charge in Moscow, in a "long telegram." It pointed out, among other things, that Soviet leaders were orthodox Marxists, that their foreign policy was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they were under capitalist encirclement, and that they would participate in legitimate international activities intended to weaken the West and strengthen themselves.

Then, in March 1946, Winston Churchill, the British opposition leader, delivered the famous "Iron Curtain" speech in the company of President Truman in Fulton, Missouri. Churchill, almost evangelically, told the world that the Soviet Union had set up an iron curtain between its sphere of influence and that of the West. The "White

As Cold War set in Post- WW II era U.S.wanted to get out of S. Korea

House policy paper" appeared, also known as the Clifford paper, which was actually authored by the little known George Eisey, a young lieutenant in the Navy Reserve. It was the first comprehensive overview of U.S.-USSR relations. Its importance is exaggerated, but it differed from the earlier U.S. government papers (Willet's article, Kennan's telegram, and the State Department's May 15 policy statement) on a pivotal issue regarding the inevitable clash of the two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SSR. It cautioned that the United States must assume that the Soviet Union might start a war at any time. The Clifford paper marked the climax, on the U.S. side, of the lead-up to the new international setting.

General Hodge in Seoul, who had been advocating tough policies toward the communists, was only too happy to echo this tough language from Washington and around the world. These utterances were mere confirmation of what had been taking place, the world split into the two camp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Hodge urged Washington to delay convening the Joint Commission (JC), as provided by the Moscow agreement, to allow him and his supporters time to form some kind of "national unity organization." What this meant actually was that Hodge wanted to consolidate rightist support in the southern zone. He, Syngman Rhee, and Clarence Goodfellow, Hodge's advisor, formed the Representative Democratic Council (RDC), which replaced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KPG). Hodge referred to the RDC as the newly organized Korean government and described it as a coalition group of all the important parties. This was an attempt to present a unified rightist front before the Joint Commission opened.

The RDC was the first of several unsuccessful attempts by the occupation government during 1946 to create a coalition in the south that would separate moderate leftists from "extremists" in the Korean Communist Party (KCP) and KPR and thereby isolate them. The Korean RDC leaders, however, were more hard-nosed about the leftists and wanted none of them, whether they were moderate or not. When the RDC held its first meeting on February 14, 1946, it could hardly deserve the word, coalition. Its members, selected by Rhee and Kim Ku for their anticommunist stand, consisted of twenty-eight political leaders, twenty-four of whom were from rightist parties

and only four of whom were known leftists, only one of the latter four actually being present. Even moderate Kim Kyu-sik was critical. But the AMG had no alternative but to back them.

Hodge continued to use the RDC as an advisory body until the Interim Legislature was founded in November 1946. Tough talk aside, both sides proceed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Moscow Conference. As provided in the Moscow agreement, the U.S.-Soviet Joint Commission, which was in fact a Soviet compromise of the earlier American proposal, began convening in March, following a two-month long preparatory meeting. But it was adjourned indefinitely on May 8 over the ques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t issue was not the abstract principle, but whether to include the Representative Democratic Coun-

and go home.

Left-Right Coalition

Yi Chong-sik said in his 1974 article, "Left-right coalition of Yo Unhyong/Kim Kyu-sik" (여운형-김구식 좌우합작), that the Yo-Kim coalition effort was very significant for Korean spiritual history as well as contemporary history. If it were significant, one would hardly know it, for it attracted little attention for a long time among scholars in South Korea. Few scholars were interested in the coalition question because the coalition had failed. It was considered to be an unrealistic dream, and scholars feared being "red-baited" and politically persecuted during the era of the Park-Chun dictatorial regimes. But to ignore the coalition movement because of its failure is almost like

Hodge had to contend with the increasingly recalcitrant Syngman Rhee, who criticized Hodge as falling under communist influence. Hodge was called to Washington to explain the situation in Korea. According to James I. Matray, Hodge's February 1947 visit to Washington represented "a turning point in the U.S. Korea policy—away from cooperation with Moscow." Hodge had urged the administration to abandon further attempts to build a moderate coalition and consider the creation of a separate government in the southern part. This coincided with the Truman administration's thinking at this time and within a month, in March, the famous Truman Doctrine of containment would be enunciated. But before that critical step was to be taken in Korea, one final attempt to cooperate with the Soviet Union would be made.

The U.S.-Soviet Joint Commission reconvened in the spring of 1947 in the midst of a quiet shift of Truman administration policy toward Korea. A year earlier, only tough talks were exchanged. But now, the U.S. policy was moving away from collaboration with the Soviet Union and from merging the Right and Left in southern Korea.

The 1947 Joint Commission opened on a promising note, with both sides agreeing not to consult extremists on either end of the political spectrum, but again deadlocked on the same issue as the previous year—the issue of representation of the Korean groups in the commission. Within two months, the Joint Commission adjourned. Hodge nailed shut the possibility of future Joint Commission meetings. On July 11 he impetuously lifted the ban on public demonstrations against the Moscow agreement—to the great jubilation of Korean rightists, who waged a literal war against the moderate and leftist politicians and their sympathizers. Just over a week later, on July 19, 1947, a Kim Ku supporter assassinated one of the two primary coalition leaders, Yo Un-hyong. With Yo's death, the coalition movement came to an end. To quote Matray again, "Hodge had Yo's blood on his hands." Kim Kyu-sik withdrew from active politics. The middle of the road [now] was conspicuous by its absence. Political polarization became a fait accompli. All Washington wanted now was to get out of the southern occupation zone after setting up a government strong enough to withstand communist aggression there.

(Please turn to page 11)

Left-Rights Coalition, Unrealistic Hodge pushed for Separate Regimes

cil, whose leader, Rhee, was adamantly opposed to the trusteeship plan. The Soviet Union simply could not have Rhee as part of the process.

The breakdown of the U.S.-Soviet Joint Commission shattered any hopes of an early solution for the Korean problem and placed the State Department in a quandary, for the War Department repeatedly had urged a swift pull-out from Korea, citing the lack of strategic importance of the Korean peninsula. General Hodge also recommended the troop withdrawal. He had been ailing intermittently, and his troop morale was low due to fatigue, homesickness, and supply shortages and poor housing. He was also worried about growing sentiment against the American military among Koreans due to the alleged criminal behavior of American soldiers and a widespread perception that the U.S. authorities were coddling the collaborators and wealthy elites. The U.S. government needed to act swiftly, before things unraveled in the brief period after the indefinite adjournment of the JC and before any new problems emerged. What surfaced at this juncture was the coalition of moderate elements in the summer of 1946. Hodge was persuaded to try his hand in this, perhaps even sweet talked into believing that if it succeeded, he could turn over the governing of Korea to the Koreans

dismissing the importance of the March First (삼일운동) movement because it did not succeed. Just as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had exhibited the virility of the Korean spirit of self-reliance and the aspiration for self-determin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Yo-Kim coalition in the AMG interval demonstrated the true wishes of ordinary Koreans—a unified, independent country.

But Hodge did not follow through. When the critical moment arrived and issues that he opposed had to be dealt with, Hodge's deeply held distrust of anyone but the ultra conservatives surfaced. Completely ignoring repeated Yo-Kim pleas for delaying the election, he went ahead with it allowing only one week for election preparation. The result was predictable: the majority of the elected members were conservatives. When the Coalition Committee protested, "Hodge committed an even more astonishing blunder." Contradicting himself, he appeased the Yo-Kim coalition by appointing only the moderates and liberals, from the list Kim provided, to the remaining seats in the South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SKILA) and selecting Kim as its president. When Korea's first "elected" assembly opened on December 12, twenty-seven rightist delegates boycotted it.

During the early months of 1947.

한국전 참전 용사 인정법안 제정의 비화

27세의 김예진 동문은 미래를 워커

“6.25는 전쟁도 아니었다” 라는 미국 의회를 설득

서정하 (徐貞河)박사

(공대59년 졸업)

북가주 6.25 참전단체연합회장

지난 7월 28일 여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는 나에게 아내가 “워싱턴의 헨나 김(Hannah Kim)이 전화했어요. 7월 27일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 용사 인정법안(Korean War Veterans Recognition Act: HR2632)에 사인한 것을 서 박사님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대요”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59년 전의 한국전쟁과 그 참전용사들을 다시 봐야 한다”며 매년 한국전쟁 휴전일(7월 27일)에 전국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법안에 서명, 공포했다. 그 배후에는 휴전후 56년간 잊혀져가는 미국의 6.25참전용사들이 있었고, 그들을 도우려는 ‘고마움을 아는 민족’, 우리 동포들이 있었다.

56년이 지나 미국이 6.25용사를 인정한다면 그 동안 미국은 미군 6.25용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대답은 “미국은 미군 6.25참전용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다.

6.25중 생사를 헤매다 고향으로 돌아온 크리스 파레카스(Chris Farlekas) 병사는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내온 가장 가까운 가정을 방문한다. 그는 자신이 직접 보고 자신만이 아는 6.25의 참혹한 진상을 말하기 위해 찾아가 무엇부터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시각이 저녁 8시 45분, 느닷없이 누군가가 “9시부터는 ‘I Love Lucy Show’ 시간”이라고 말하자 모두 다른방으로 나가버린다.

그는 말없이 그대로 그집을 떠나 그사람들과 몇 해 동안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슬프고 한많은 미군 6.25용사들의 이야기는 30년간 퍼져 1988년 베스트 셀러가 된 ‘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 Random House 출판)에서 6.25를 아예 ‘잊혀진 전쟁’으로 바꿔 놓았던 것이다.

6.25 참전용사인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연방 하원의원은 2001년 월터 크론카이트와 TV 회견에서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한 것은 그것보다 더 적절한 이름이 없기 때문”라고 했다.

세월이 가면서 모두 잊혀져 부르는 ‘잊혀진 전쟁’도 있지만 잊으려고 몸부림 치면서 부르는 또다른 ‘잊혀진 전쟁’도 있다. 너무나 슬프고 ‘한’이 쌓이면 그것을 잊으려고

몸부림친다. 그래도 잊지 못하면 “이제는 잊었노라!”고 소리친다.

6.25때 소위로 참전했던 나도 그랬다. 1년전 내가 쓴 시에서 나는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지금쯤 6.25는 잊었을 것”이라 했다.

나는 지난 5월 초 셋째딸 ‘리야’의 내무부 차관보 임명 상원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DC에 갔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번에도 랭글의원이 똑같은 한국전 참전용사 인정법안(Korean War Veterans

Recognition Act)을 상정할 것 같다”고 했다. 반가우면서도 “왜요, 또 왜요?” 하고 묻는 나에게 “오바마 대통령은 세상을 바꾸었고 랭글 의원

이 법안을 제출하고 지지하던 사람들은 6.25를 “잊혀진 전쟁”이라 부르며 끈질기게 나와 동조하는 미군 6.25 참전용사였다. 이를 반대했던 미국의 막강한 두개 참전용사 단체들은 자기들이 6.25참전용사도

7천명이고 235지부가 있다.

우리 6.25용사회는 다른 두 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즉 100분의 1도 못되는 회원수를 갖고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경제, 재정, 입법(정치)력에서 무시당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숙명적 큰 결함은 6.25용사 단체는 6.25참전자만 다 사라지면 그만이다. 다른 미국 참전단체는 이런 숙명적 결함이 없고 언제나 젊고 유능한 참전용사

도 워싱턴에 ‘조기’는 모두 걸렸다. 많은 사람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사인해 법으로 7월 27일 조기를 게양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아니었다. 7월 27일 조기를 게양하게 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날, 2009년 7월 27일을 한국전 휴전기념일(National Korean War Armistice Day)날로 선포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은 상하원에서 가결하는 법과는 관련없고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결정, 선포하는 것으로 1995~2003년까지 9번, 그때의 대통령이 7월 27일 한국전 휴전 기념일을 선포하고 워싱턴에 조기를 게양했던 것이었다.

그러면 9년동안 입법을 추진했다가 2004~2008년까지 4년 동안 중단했던 한국전 휴전 기념일 입법을 누가 다시 추진했던가.

그것도 헨나 김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법안 통과에만 열중하며 한번으로 끝나는 선포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다. 그러나 헨나 김은 백악관을 상대로 이전 부터 따로 추진해 성공했다. 그결과 우리는 7월 27일 워싱턴에서 나누기는 미국의 조기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5월 21일 이 법안을 상정하면서 랭글 위원장의 입법보좌관은 6.25 전쟁 60주년을 한 해 앞두고 있어 법안은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게 목적이라 했다. 7월 27일 이 법안제정으로 끝낸 것은 6개월 간 달성할 계획을 2개월에 마친 것이다.

헨나 김은 이것을 이 시한 안에 마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기적을 만든 일꾼(Miracle Worker)’이라 부른다.

이 일을 성사시킨 27살의 우리 동포 헨나 김의 e메일 중에는 이런 절규가 있다.

“서 박사님, 저는 무척 노력했으나 실패로 끝났어요. 저는 남 문기 새 회장과 연락 못했어요. 꼭연락 하셔서 도움을 청하세요. 그 분은 우리를 크게 도울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그후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남 문기 회장과 연락해 헨나 김이 원하던 200만 미주 한인들을 대표해 각 연방의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팩스로 보냈다.

헨나 김의 두번째 e메일을 소개한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SF의 서정하(Suh Jungah) 선배님과 서로 알(10 페이지에 계속)

미국이 잊으려는 전쟁과 6.25 참전용사 수년간 7개 법안 의회에서 무산 끝에 성공

Recognition Act)을 상정할 것 같다”고 했다. 반가우면서도 “왜요, 또 왜요?” 하고 묻는 나에게 “오바마 대통령은 세상을 바꾸었고 랭글 의원

포함되며 “6.25는 절대로 잊혀진 전쟁이 아니다” 그리고 “메모리얼 데이는 1년에 한번이면 된다”고

들이 나서서 운영할 수 있다.

지금 살아있는 6.25용사는 약 200만명이지만 6.25용사회 회원수는 고작 1만 7천명이다. 분명히 1%



한국전 참전 용사법 통과를 축하하는 후원자들 (좌측 두번째가 서정하박사, 다섯번째가 랭글 의원, 앞줄 중앙에 흰 선포서 앞(랭글 의원 왼쪽)에 앉은 사람이 김예진양

은 지금 막강한 세입세출 위원장이 됐기 때문”이겠다.

5월 21일 드디어 랭글 위원장이 그 법안을 상정하자 나는 계획대로 밀고 나갔다. SF.에서 신문기자 간담회를 하고 수십통의 편지와 법안 내용을 담은 자료를 보내면서 전화와 Fax로 바쁘게 지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e메일을 하나 받았다. 헨나 김이라는 한국 여성 같은 사람이 서울대 미주동창회에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협조해달라는 내용인데 내게도 보냈다.

나는 랭글 위원장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헨나 김이 누구냐?”고 물었다. 입법 보좌관은 “그는 20대 한인여성”이라며 전화번호를 주면서 어서 연락해 같이 도와달라고 당부한다. 그게 내가 헨나 김(한국명 김예진)과 처음 전화를 한 계기였다. 지난 몇년 동안 끈질기게 미 상하

반대했다.

두개 막강한 참전용사회는 미국 참전용사회(American Legion)와 해외 참전용사회(Veterans of Foreign Wars)다. 미국 참전용사회는 1919년 세계 1차 대전후 유럽에서 돌아온 참전용사로 시작됐고 미국에서 지금까지 모든 전쟁의 참전용사들로 구성돼 6.25용사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회원수는 300만 명이며 전세계에 1만4천 개 지부가 있다.

해외 참전용사회는 1899년 스페인 전쟁과 필리핀 전쟁 용사들로 시작돼 현재 220만 회원이 전세계에 8천100개의 지부 산하에 있다.

한국 참전용사회(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는 6.25 한국 전쟁 용사만의 단체고 1985년에 구성됐으나 미 의회에서 등록단체(Charter Member)로 인정 받은 것은 2008년이다. 현재 회원수는 1만

도 안되는 6.25용사만이 미국의 6.25용사회 회원이라는 또 다른 슬픔이 있는 것이다. ‘6.25용사회’는 생긴지가 얼마 안돼 대부분의 6.25용사들은 이 단체가 있는지도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한다.

나는 그간 분주했다. 수많은 e메일, 팩스, 전화를 미 상하원 의원들, 미 6.25용사회, 그리고 우리 동포 단체와 주고 받았다. 그 모든일은 나의 집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했으나 헨나 김은 모든 일을 워싱턴 DC에서 했다. e메일, 팩스, 전화는 물론 그 수많은 하원의원들을 따로따로 모두 찾아 다녀야 했고, 그 짧은 시간에 그자리에서 ‘찬성’으로 이끌어 내야했다. 여기서 또 한가지 헨나 김의 숨은 성과를 소개한다.

7월 27일, 워싱턴 DC. 의 아침은 맑았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이 법안에 사인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10페이지에서 계속)

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아주 크게 두고 있어요!”

나는 전화로 “그 사람이 나” 라고 간단히 전해 주었다.

부모님을 따라 6세 때 미국에 온 헨나 김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나 한국으로 유학가 서울대 (영어 영문학부)를 졸업했다. 그래서 내가 서울대 (공대 기계과)를 6.25 직후 군복을 입고 대위 계급장도 달고 다니며 졸업했다니까 그때부터 나를 “선배님”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서울대 동창 중의 누군가가 “어떤 서울대 선배가 헨나 김을 많이 두고 있다”며 이름을 ‘Sub Jungah’로 알려줘 그녀는 또 다른 내가 있는 줄 잠시 혼돈한 것이었다.

헨나 김이 도와주는 사람들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며 겸손한지를 보여주는 e메일도 있다.

“선배님, 어떡하면 좋아요. 나는 그 충격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유명해지는 것이 무서워요. 그러나 이 법안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고맙다고만 생각해야겠지요. 선배님의 도움 너무 고마워요. 꼭 워싱턴에 오세요. 26일 휴전 기념일에 만나요. 그리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국회의 환영 모임 (Capitol Reception)에도 참석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e메일은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성공되면서 물려드는 미국, 한국의 신문과 TV기자들을 보면서 너무 놀라 나에게 보낸 것이었다.

나는 워싱턴 DC에 가 7월 26일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열린 한국전 휴전 기념행사에 참석해 그간 e메일과 전화로만 만났던 ‘헨나 김’을 처음으로 만났다.

나는 만나는 순간 “헨나 김?” 하며 꺼안고 그만 울고 말았다. 옆에 있던 내 딸 리아의 눈도 어느새 벌겍게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7월 27일 랭글 위

원장 초청으로 마련된 상하원 만장 일치 통과 축하 모임에도 참석했다.

국회 의사당 H-137호실에서 열렸고 나는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웃(사진)을 입고 내 딸 리아와 함께 찾아갔다.

나는 거기서 59년 전, 6.25 때 흑인 랭글 일등병 (Private Rangle), 지금의 랭글 위원장을 처음 만났다.

59년전 6.25때 랭글 일등병 처음 만나 200만 참전용사 하루 1천명씩 사라져

랭글 위원장 외에 하원에서 단 한사람 남은 6.25용사 샘 존슨 (Sam Johnson) 하원의원도 만났다. 그리고 한국전 참전용사회 윌리엄 맥스 와인 회장 (William F. Mac Swain, National President,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과 한 덕수 재미한국대사도 헨나 김도 모두였다.

그날 저녁 나는 비행장으로 떠나기 전 혼자서 ‘워싱턴 기념공원’을 찾았다. 언제나 미국에서 가장 많은 국기가 게양되는 곳이다. 그때 많은 국기는 모두 반쯤 내린 조기로 우리 헨나 김이 애써서, 대통령이 선포한 ‘한국전 휴전기념일’의 조기였다.

끝으로 그간 특별히 나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우리 동포들, 지역 한인회와 재향군인회 지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전쟁에는 시작과 종말이 있다. 6.25의 시작은 북한이 남한을 기습 공격한 전형적인 남침으로 6.25 중

말은 휴전이라 했다.

2차대전에서 미국은 승리, 일본은 패배, 베트남 전쟁에서는 호지명의 베트남은 승리, 미국은 패배했다. 이렇게 뚜렷하게 전쟁의 종말이 있었는데 6.25 전쟁은 종말이 될 수 없는 ‘휴전’이었다. 그리고는 그휴전도 휴전이 아니라고 했다. 쉽게 말해서 “6.25는 이기지 못하고 지지

이며 ‘56년간의 휴전중 전쟁’이다. 그러면 이 ‘56년간의 휴전중 전쟁’에서는 누가 이겼는가.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을 보라! 분명히 대한민국이 이겼다. 전쟁의 종말은 56년간의 휴전이 될 수 없고 ‘56년간의 휴전중 전쟁’에서는 분명 6.25 전쟁의 종말은 우리의 승리다. 미국은 3년간의 6.25전쟁으로 한

김 대중—노무현 정권 때와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년간의 ‘노안의 눈물’이라도 닦아줄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사라져 가는 6.25 참전용사는 앞으로 매년 7월 27일, 그리고 틀림없이 미국에만 오는 ‘6.25참전용사 인정의 날’을 얼마나 더 오래 멀리서만 보다가 사라져가야 할 것인가?

끝으로 그간 특별히 나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우리 동포들,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싶다.

새크라멘토 6.25 참전 국가 유공자회 정 영식 회장, 샌프란시스코 6.25참전 전우 친목회 박신일 회장, 실리콘밸리 6.25참전 국가 유공자 전우회 정 해성 회장, 시카고의 미중서부 6.25참전 전우회 김 태호 회장, 새크라멘토 한인회 조현표 회장,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회 김상언 회장, 실리콘밸리 남 중대 한인회장, 그리고 300만 미주한인을 대표해 ‘미국 전체 국회의원에게 드리는 글’을 써주신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남 문기 회장, 시카고 한인회 전 회장 변효현 박사, 뉴욕, 뉴저지 한인 유권자 센터 정 해민 이사장, “내가 만든 한국 참전용사의 날 지지 서명판에 이름, 주소, 한국 이름도 적고 서명하신 미 중서부의 수백명 우리 동포들, 무조건 “수고 하십니다” “건강 하세요” “고맙습니다” 하시며 전화하신 그 동포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랭글의원(왼쪽)을 만나 6.25의 참상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도 않고 비기지도 않은 전쟁이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니었다”의 “뿌리”

국을 살려놓고 한국은 살아서 그후 56년간의 전쟁에서 이겨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웠다. 우리는 이제부터

라도 분명히 미국에서 이 6.25의 승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미국 한국전 참전용사는 6.25때 650만 명, 그러나 지금은 200만 명이며 지금 하루에 1천 명 이상 사라진다는 통제가 나왔다. 우리는 그들에게 지금 먼저 찾아가 말해야 한다. 당신들은 “승리한 한국전쟁의 영웅”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후 6개월내에 “미국의 원충일을 2일 (이틀)로 하면 안된다”며 반대한 모든 미국의 막강한 참전용사 회들을 물리치며 상하원 만장일치로 매년 7월 27일에도 조기를 게양하면서까지 “미국의 6.25참전용사를 인정하라”는 법을 제정했다.

한국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후 1년 6개월동안 사라져가는 한국 6.25참전용사를 보는 ‘눈’은 지난 10년간

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휴전’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건을 찾아봐도 휴전 (Armistice)은 “잠시 전쟁을 멈추고 원다”는 것이다. ‘56년간 휴전’했다면 그것은 휴전이 아니다. 세상에서 그런 휴전은 없었다. 우리의 56년간의 휴전은 제대로 휴전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휴전중 전쟁’

U.S. Military Government was the crucible of the divided Korea

(Continued from page 9)

To accomplish this, the U.S. Congress adopted a proposal providing for the referral of the Korean question to the United Nations. The U.S. government submitted it to Moscow on August 12 and called for a U.S.-Soviet joint report.

In November 1947, the United Nations approved a resolution calling for an election in Korea in the spring of 1948. When the Soviet Union predictably denied the U.N. access to the north, the United States persuaded the U.N. to sanction an election in the southern area alone. The election was set for May 10, 1948. Kim Kyu-sik opposed it. Kim Ku also was against it. The two Kims now joined

hands

and endeavored to stave off what they considered the disastrous permanent division of Korea. The two Kims sent a letter to Kim Il Sung in February. Two months later, the northern leader replied and invited the two Kims to the north to participate in a meeting to discuss the issues. The two Kims were cautioned that they might become Kim Il Sung's propaganda ploy. But the two elderly politicians went, saying they could not help but seek all avenues to national unification. Upon returning to the south, they were severely ostracized. They sat out the May 10th election. As expected, Rhee's supporters won a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n turn

elected Rhee as the first president. On August 15, the third anniversary of liberation from Japan, The Republic of Korea (ROK, a.k.a. South Korea) was declared. Three and a half weeks later,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DPRK, a.k.a. North Korea) was established in the north.

Conclusion

As briefly reviewed,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was the crucible of the divided Korea.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was that the U. S.,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 Truman, was preoccupied with warding off the threats of communism, orchestrated by its wartime ally, the Soviet Union. Despite its enormous power in the post-WW II world, the U.S. was only beginning to understand its role as the new leader in the new world. Even an experienced world

hegemon would have found it hard to lead the world at that time. And in a world divided into two contending blocs, the United States found it hard to look and think beyond safeguarding its own national interests and found it difficult not to overestimate Soviet power and capabilities.

Even more so, the United States then could neither understand nor heed the hopes and dreams of the people whose nation it had come to help rebuild. In the power vacuum and chaos after the departure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 Korean people themselves were divided into numerous contending groups with equally numerous ideological shades. All that the AMG leaders could see, however, were the colors of red and non-red. In their fear of communism, they blindly supported non-commu-

nists, who did not necessarily have either the interest or the support of the majority of the Korean people. There was much left to be desired in the AMG's policies during its three-year rule in Korea. One must remember, however, that the AMG operated “in an extremely chaotic post-colonial Korea, where domestic political struggle among contending groups became the agents of two superpowers of the Cold War era.

[A slightly different version of this article appears as “Introduction” in a volume, *Korea Under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1945-1948* (Praeger, 2002) edited by the author with the author's copyright.]

Bonnie Bongwan Cho Oh retired from George Town University as Distinguished Professor of Korean Studies.

서정하 (Dung Ha Shih), Ph. D
1932 평남 진남포 출생, 50년 월남, 51년 국군 입대, 54년 육군대위로 제대, 학력: 59년 서울대 공대 졸업, 62년 도미, 65년 UC-Berkeley 박사 (기계공학), 콜로라도 대학교 (Boulder) 공대 교수 역임, 1988년 - 현재 자동차 설계 기술고문: 전화: (415) 333-8265
E-mail: drdchsh@gmail.com



이 용 락 (공대 48 입학)
(제6대 미주동창회장)

나는 거의 16세가 되던 때, 중국 요양에서 길림(吉林)중학교 4학년(졸업반) 재학 중 8.15 해방을 맞이했다.

요양은 봉천(奉天, 지금의 심양) 부근의 일본 군수공장이 있는 곳으로 일본의 중학생 총동원령에 따라 4학년에 진학하자마자 곧바로 이 공장에서 폭탄을 제조하고 있던 중 해방을 맞은 것이다.

봉천은 우리 집이 있는 길림에서 기차로 약 8시간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 당시 이 군수공장을 수비하던 일본군 병력은 약 3천명이었고, 상당수가 고사포(高射砲)부대원이었다. 고사포 부대는 공장지대를 둘러싼 높은 산들의 능선에 배치됐고 그 속에 있는 폭탄공장들을 격의 공습에서 보호하기 위한 특수대원들이 있었다.

소련은 2차대전 중 일본과 불가침조약을 맺고 있었기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의 의사표시가 소련을 통해서 있었으며 이 비밀정보를 입수한 소련은 불가침조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만주를 침공했다.

침공 당시 고사포부대는 포문을 산 아래로 향해 침공하는 소련 탱크를 공격할 준비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 탱크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일본은 연합군에 항복한 것이다.

요양에 있던 우리 어린 남녀 중학생들은 이런 갑작스런 사태 변동에 우리들의 운명을 어느 누구도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매일 화약에서 나오는 독성 가스를 마시면서 해야 하는 중노동이 없어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부대상부로부터 내려온 지시는 아무 중요 없이 부대 내부에 잠잠하게 대기하라는 것이었다.

한편 일본군 부대 창고에 비축됐던 밀가루, 튀김용 기름, 기타 각종 식품들이 분배됐다. 우리는 이것으로 튀김도 해먹으며 노동도 하지 않았으므로 얼굴 색깔은 원상을 찾았고,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부대 밖의 사정은 전혀 몰라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돼갈지 알지 못하며 살게 됐다. 적지에 남은 일본 부대원으로 포로가 된 기분이었다.

어느 날 부대 상부의 발표에 내일 오전 모든 학생 기숙사 창문의 커튼을 닫고 기숙사 정문에 백기(白旗)를 달고, 절대로 밖에 나가 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지시대로 우리는 백기를 정문에 달고, 낮인데도 어두운 기숙사 내부에서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며 앞 큰 길을 보고 있었다.

드디어 검은 세단차 2대가 진행

내가 겪은 8.15 해방 일본군 폭탄 공장의 소년 포로

하는 것을 보았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소련군 대표가 일본군 부대장으로부터 공식 항복서를 받기 위해 부대로 왔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소련군은 병사 2명만 남기고 모두 철수했다. 또 육군 대위 한 사람을 제외한 일본군도 모두 소련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들었다.

이 육군 대위는 키가 크고 매우

올대로 불침번을 교대로 지키면서 지냈다.

어느 날 낮 12시경 우리 기숙사 앞 큰 길에 어른들의 긴 행렬을 보았다. 당시 군속(軍屬)으로 일본에 징용당한 사람들이었으며 모두 가족을 가진 젊은 부부들이었다. 당시는 버스도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긴 행렬을 별 다르게 느낄 수 없었다.

었다. 그리고 본즉 전날 낮에 우리가 본 긴 행렬은 평소 소중하게 간직하던 최고의 옷을 입고 죽음의 길로 가던 행렬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부대 내부에 있던 초등학교 강당에 지정된 시간에 모이기로 돼 있었다. 알고 본즉 일주일 전부터 트럭으로 수십만 톤의 폭약을 학교 강당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했다.

중학 4학년 때 징용, 봉천서 해방 맞아 폭탄 공장에서 소련군의 포로 신세 일본인들 자폭했으면 지금 나도 저승에

건강한 체격으로 이제 민간인 신분에서 부대의 일본 민간인들의 대표로 남아 있었다.

이들 2명의 소련군 사병은 그 날부터 이 부대의 모든 일을 장악

그러나 이상하게 느낀 점은 이들은 화려한 양복, 부인들은 전통적인 일본 고급 옷,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검은 예복에 높은 검은 모자까지 쓰고 있었다.

이들의 계획은 그날 밤 12시를 기해, 이 폭약을 폭발시켜 옥쇄를 결행할 계획이었다. 그 시간은 바로 내가 기숙사에 불침번으로 보초를 서고 있을 때였다.

만일 그 계획이 그대로 진행됐더라면, 그 강당에 모인 사람은 물론 부대 전체가 불바다로 변해 보초를 서고 있던 나도 모든 동료들과 함께 개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의 이 같은 무모한 계획이 앞서 말한 육군 대위의 용감한 제지로 무산됐음을 차후 알게 됐다. 계획대로 초등학교에 모인 어른들은 자정이 될 때까지 자기들이 자살하기 전에 집단적인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매마침이 소식을 들은 육군 대위가 현장에 와서 “이런 무모한 일을 하는 것은

마친 것이다. 우리는 살아 남아서 일본을 다시 세계의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지, 당신들이 하는 행위는 천황폐하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다. 군중들은 지금까지는 육군 장교의 말이면 꿈쩍도 못하던 때였으나 이 때는 그 호소를 무시하며, 그들의 계획을 관철할 것을 주장하는 동안 시간은 자정이 돼 폭약의 뇌관에 끝내 불을 붙이게 됐다고 한다. 그 때 육군 대위는 군중 속을 헤치고 뛰어 들어 뇌관 심지를 뽑아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64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생각을 하면 오금이 떨릴 지경이다. 내가 아직도 편안히 살고 있는 지금의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더욱 느끼게 된다.

그리고 보면, 16세란 어린 나이가 되는 동안 2번이나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셈이다.

첫번째는 소련군 탱크부대가 우리 부대에 도달했을 때였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도 나는 부모님과 연락할 수도, 부모님이 나를 찾을 수 있는 길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작은 아버지가 부대로 찾아오셨다.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데리러 오신 것이었다. 이리하여 일본인 동료 학생을 뒤로 하고 다른 조선인 학생 2명도 함께 부대를 떠났다.

나는 숙부님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으며, 밖의 세상에 대해 물을 사이도 없이 즉시 봉천으로 향했다.

부대 밖으로 나가기 전 우리는 숙부님이 준비해오신 조선인(朝鮮人)이라고 쓴 명찰을 가슴에 달았다. 내 마음속에 조선인은 일본인과 구별돼 있다는 표시로 생각됐다. 즉 세상이 바뀌어 멸시의 이름인 조선인이 순식간에 보호받는 특권같은 예감을 받았다.

내 예감은 맞았다. 봉천에 도착하자 우리는 시내 어떤 초등학교 교정에 모인 많은 조선인과 합류해 그 날을 보냈다.

이 학교건물에는 큰 현수막에 ‘대한민국 만세, 이승만 박사 만세, 김구선생 만세’등의 구호가 한자로 적혀 있었다.

그 때야 우리도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그렇다. 나도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생을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감격의 순간이 쉽게 온 것이 아니었음을 곧 깨닫게 됐다.

즉 8.15 해방이 되자, 그동안 일본인 보다 훨씬 낮은 계층으로 취급당했던 조선인들임에도 중국인들 매우 멸시하고 있었던 탓으로 중국인들의 증오감은 일본인에 대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배경 속에 8.15 해방이 오자 중국인들은 일본인과 조선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 송전국인 중화민국 장개석 총통의 특명이 하달됐다.

“조선인은 우리와 함께 일본에 대항해 싸운 우방의 국민이므로 절대로 조선인에게 폭행하면 안 된다. 만일 이를 위배할 시에는 당사자를 엄벌에 처한다”는 명령을 하달했다는 것이었다.

그제야 요양의 부대를 떠날 때 가슴에 단 ‘조선인’이라는 명찰의 뜻을 깨달았다.

정식 교통수단이 없었던 당시, 화물차로, 혹은 트럭으로 약 1주일이나 걸려 길림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본 기사는 필자가 재미 과학기술자 협회 (KSEA)의 KSEA LETTERS: Vol. 37, No.3 in June 2009에 연재한 원고 중 일부임



내가 1942년 졸업한 길림의 초등학교인 둔화국민우급학교(敦化國民優級學校)다. 나는 지난 2008년 이곳을 방문했는데 이 학교는 현재 둔화시 제4소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으나 아직도 조선인 학교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 학교 졸업후 역시 길림에 있는 길림중학교에 진학한지 3년 후 8.15 해방을 맞았다.

한 절대 군주가 된 것이었다.

이들은 부대 정문에서 보초를 서고,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때로는 여자 중학생들을 겁탈하려는 사건도 발생했으며, 그럴 때마다 육군 대위가 제지한 때도 있었다.

이때 나는 나라의 힘이 약해진 서러움을 절실히 느꼈다.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서 일본의 지배를 받아온 우리 운명도 같은 것이었음을 새삼 깨달았다. 약 1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있었던 다른 일들을 이 수기에 빼놓을 수 없다.

포로 신분이지만 편안한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밤에는 종전 규

이 행렬이 무엇을 뜻하고 있었지는 우리들은 알 길이 없었고, 또 알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나는 그날 밤 불침번이었기에 밤 12시부터 한 시간 동안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 이튿날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내가 보초를 서고 있는 바로 그 시간 무시무시한 일이 어른들 사이에 벌어졌다는 것이었다. 내용인즉, 대일본제국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은 일본인에게 무한한 굴욕감을 주었으며, 천황폐하에게 무한히 송구스런 마음으로, 살아서 평생을 보내느니 차라리 옥쇄(玉碎)하는 쪽이 낫다는 결의를 했다는 것이

동문 수상(隨想)

‘나의 입시문’

“중학생으로 여순고 합격”

경기·경북 졸업생 등과 4명만 입학
8.15 맞아 귀향 후 서울대 진학

박경화(문리 45)

나는 보통학교부터 시험보고 입학했다.

내가 살던 동네 서당에 잠깐 다니다 보통학교 2학년에 편입한 것이다.

첫 학기 통신부(성적표)를 들고 뿔뿔뿔 걸어가는데 박일형이 빼앗아 보더니 “갑(甲)이 들인데 6등, 너네 애들 공부 못하냐!”고 했다.

못하거나 말거나 그 후엔 등수 표시가 없었는데 졸업 때는 남자 40명, 여자 20명 가운데 1등이었다.

신의주 상업에 편입 진학했는데 거긴 현역(제수, 3수 않고)입학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일본애들은 모르지만 1학기에 50명 중 24등, 4학년 1학기에 14등을 했다. 공부는 썩 잘했는데 교련·체조·검도는 언제나 67점으로, 4학년 2학기에 67점까지 합해서 67점을 도합 31개 받았다.

날카로운 질문을 잘 해서 선생님들을 골탕먹이고는 했다. 그것은 오산(五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하 담당이었던 모 선생님은 내가 여순(旅順)에 간 다음 5학년생들에게 “나는 그 녀석이 손을 들면 가슴이 철렁했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 했다.

대수와 물리를 담당하셨던 안

천수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서시면 나를 쳐다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곤 하셨다.

신상(新商)에서 오산에 가려면 대개는 한 학년을 낮추어 3학년으로 가야 하는데 나는 3학년에 자리가 없어서 4학년에 그대로 갔다.

그런데 가자마자 첫 대수(代數) 시험에서 나 혼자 100점을 받았다. 그래서 안 선생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아주 지극하셨다.

1950년 6.25 한국전쟁 때 선생님께서 서울에 오셨었는데 평양에 가자고 하시기에 찾아뵙지 못해 지금도 크게 후회가 되곤 한다.

나는 그 만큼 상당히 똑똑하기도 했는데(착각은 자유)또 어떤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었다.

고등학교는 원래 5고(五高)·갑남고(甲南高)·명치학원(4修可)을 지망했는데 조선 장학회에서 5고는 썩 지워버렸다.

일본 본토 이외에는 대북대(臺北大) 예과 대북고, 여순 공대 여순고, 만주의대 예과, 경성대(京城大) 밖에 없었는데 여순공대는 1월 6일 입시가 완료돼 여순고의 만주의대 예과

왔다.

여순에는 여관이 없다시피 해서 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향양학료(向陽學寮 지금의 기숙사)에서 지원자들을 수용했다.

경기중 출신 지원자들과 내가 한 방에 있었는데 경기 4수생들은 모두들 시험을 잘 보았다고 까불었는데 당시 경기 6졸(卒)인 송강(이영제)과 나만이 우울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이군과 또 김상하(경북 5)·최덕환(경북 5년간 1등, 급장)과 나 등 4명이 합격했다.

당시 나는 오산중학 5년을 다 마치지 않은 4학년 생으로 시험을 치렀다. 그런데 여순고에 합격을 했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오산중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나에게는 교장 특별 구두시문(口頭試問)이 주어졌는데 유키모토(行元) 교장은 한국인 문과생들이 병역 도피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 날 나는 면접 도중 “거짓은 안통합니다. 일시동인(一視同仁)이나, 내선일체(內鮮一體)니 해봤자 누가 믿겠습니까?”라는 대답한 말을 했다.

‘물리·수학선생님들 수업 중 내가 손
들면 늘 가슴 철렁’ ‘공부 잘했으나
교련·체조·검도는 언제나 67점 수준’

성대예과(城大豫科)에 출원했다.

당시는 일본 제국대학에 진학하려면 여순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거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다. 그만큼 일본인들은 당시 여순고를 한반도 최고의 고등학교로 만들어놓았던 것이다.

여순은 입시율이 몇대 1이었는데 지 알 수 없었으나 시험은 도쿄(東京)·후쿠오카(福岡)·신경(新京)·여순 네곳에서 보

나의 합격은 그 덕을 봤을 것 같다.

3월 15일 우편국에서 혹시 전보가 올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리오(지급전보)가 오니까 창식형이 “불었구먼!” 했다. 거기에는 리오가 올 개인이나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한국 말이 능한 이마무라(今村)의 부인 조언으로 침구를 장만해서 가지고 갔다.

신설고(新設高), 대륙 유일의 교교답게 전교생(600명)을 수용하는 전료(全寮)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1실(室) 8명 수용이었는데 어느 날 밤 우리 방에 ‘오야지’라는 별명의 와이당(猥談)의 대가(봉천 2중 출신)를 모셨는데 정말 대가다웠다.

이 친구는 그해 매일 밤이니까 학교 출석은 대반(代返), 시험은 커닝으로 졸업했겠지만 대학은 무시험으로 구대(九大)에 가 이익흥씨의 후배가 됐을 것이다.



여순고 입학 후인 1944년 경 나(뒷줄 가운데 교복차림)와 일본인 급우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다. 당시 일본인들은 학생들도 거의가 군복차림으로 등교하고 있었다.

이씨 이야기로, 이 씨가 내무 장관 취임 첫 날 축하객이 만

“사시를 여덟번이나...”

“아, 그러시다면 이제는 그만 하십시오. 말씀을 드리기에 정말 어렵습니다만 제 밑에 들어오시면 제가 끝까지 보아드리겠습니다.”

이리하여 제국대학 출신 순사가 생겼고 박천(博川) 서장 오오야마(大山益興)와 내무장관 이익흥이 탄생한 것이다.

송산고교를 졸업할 때, “선생, 정대(京都帝大)도 시험을 칠니까?”

“그래, 너는 구대(九大)나 가!” 했던 유키모토(行元豊圓) 생도 주사(主事)는 여순고 제2대 교장으로 나를 특별 구두시문했다.

여순에서는 아무 재미도 없었다. 1980년도 발행 ‘관립 여순고등학교 창립 40년사’를 읽어보니 여순이라는 교장이 일본인들에게 유서도 깊은 곳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일본의 패전은 분명해서 집으로 갈 걱정이 태산같았다.

결국 봉천역에서 잠깐 조는 사이에 팔목시계를 날치기 당했다. 그러니 여순서 대련·봉천·안동을 거칠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다.

복학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영제가 자꾸 가자고 해서 갔다가 모두 집어치우고 8월7일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그것이 해방 8일 전이었으니 나에게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나 할까.

여순(旅順)

여순은 현재 중국 북방에 있는 최대 항구도시인 다롄(大連)시의 6구 가운데 하나다.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이곳에 관동도독부(關東都督府)를 설치하고 일본 육해군형법·국가형법으로 관내 주민들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했다.

관동주 지방법원은 일본의 대표적인 식민통치 기관으로

중국인 뿐만 아니라 당시 요동지역에 거주하던 러시아·이집트·터키·독일의 인사들까지 재판하고 투옥시켰다. 이들 중에는 안중근·신체호 등 우리 애국지사들도 포함됐다.

특히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는 이곳으로 이감돼 1910년 2월 7일부터 공판이 시작, 2월 14일 6차 공판이라는 초고속 재판으로 사형판결을 받았다.

음악 칼럼

팝송 이야기<1> The African American Stream/Minstrel Music



주혜정(음대 92)

동창회보의 문화예술 지면을 위해 주혜정 동문의 '음악칼럼'을 새로 연재합니다.

주 동문은 모교에서 피아노 전공으로 지난 2006년 9월 부터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에서 Commercial Music(작,편곡)을 전공했습니다.

주 동문은 팝 역사로 졸업시험도 치렀을 정도로 많은 연구를 해와 AcropolisTimes에 장르별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의 첫번째로 흑인음악이 미국 팝송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또 Minstrel Music에 대해서 알아보죠.

미국 역사에서 흑인을 빼놓을 수 없듯이 미국 팝 음악에도 상당한 흑인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200만 명 가량의 흑인 노예들이 미국으로 왔는데 그들은 그들의 문화·언어·음악적 전통까지 미국으로 가지고 왔

습니다.

미 흑인(African American) 음악은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와 유럽문화의 전통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아프리카 음악의 Call-and-response 형식은 미 흑인음악과 미국 팝음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all-and-response 형식은

에 Funk Music 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James Brown음악에 많이 있습니다. 이 리듬은 또 Rap의 반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양 음악은 미학적으로 선명한 음색을 이상적으로 생각했지만, 아프리카 가수와 연주자들은 다양한 음색을 사용

흔히 컨트리 음악은 전형적으로 백인 음악으로 여겨지지만 Ray Charles 나 Charley Pride는 흑인이었고 또 중요한 컨트리 가수, 예로 Jimmie Rodgers·Hank Williams·Willie Nelson은 미 흑인음악에서 절대적 영향을 받았죠. 1950년대 의 Rock 'n'

유행했던 뮤지컬의 일종으로 백인들이 얼굴을 흑인처럼 검게 분장하고 미 흑인들의 음악·춤·의상·언어 등을 패러디한 것으로 이 쇼에 쓰인 음악이 Minstrel Music음악입니다. 왜 이게 팝송 역사에 들어가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이 음악이 첫 번째 미국의 팝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로 1840년부터 1880년까지 이 음악이 미국 Pop 장르를 장악했습니다.

이 음악의 기원은 Irish&Scottish folk music, 아프리카의 음악전통입니다. 악기는 African Banjo·Tambourine·Fiddle·Rib bones 이 주로 쓰였고 가사는 주로 미 흑인들의 문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당김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또 하나 이 음악이 중요한 점은 비록 흑인 음악을 따라했지만 젊은 백인들의 첫번째 자기들의 문화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 작곡가는 Dan Emmett 이고 대표 음악은 'Da Boatman's Dance' 'Zip Coon' 'Jim Crow' 가 있습니다.

이 Minstrel Show는 나중에 Vaudeville이라는 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흑인 가수들(W.C. Handy·Ma Rainey·Bessie Smith)의 서서 하는 공연문화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Minstrel음악에 궁금한 점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hjoo06@hotmail.com
www.myspace.com/hyejungjoo
Acropolis Times



독창자와 합창이 번갈아 가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독창자는 여기에 즉흥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짧은 phrase (악구)가 다양하게 반복되는데 음악에 힘과 다양성을 주며 riff라고 불립니다.

아프리카 음악에서 Polyrythm(서로 다른 리듬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흔히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은 후

했습니다. 다양한 음색을 만들기 위해 그들은 허밍과 울림을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테크닉은 블루스·가스펠·재즈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음악의 미학적 관점과 테크닉은 미 팝 음악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Minstrel·Ragtime·Blues·Jazz에서 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roll, R & B, 1960년대의 Soul, 모든 팝 가수의 Vocal style (Whitney Houston, Bruce Springsteen, Michael Jackson), Rap 음악 등 미 팝 역사에서 영향을 안 받은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Minstrel Music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는 Minstrel Show를 위해 쓰여진 겁니다. Minstrel Show는 1800년대에

동문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전문적 논설과 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정서를 부유케 하는 개인 문학작품(시·수필·기행문·단편소설 등)과 미술·음악해설에 관한 글 등을 게재하려고 합니다.

또한 동문 회보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을 게재해 독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회보 편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가급적 한글 타자로 하시어 e메일로 보내시거나 필경을 한 원고는 우편으로 보내시고 팩스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보 1페이지에 적합한 원고 분량은 12포인트 싱글 페이스, 레터 사이즈 3페이지 정도면 필자의 사진 및 관련 사진 1매와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창회와 연락 및 투고를 하실 때는 본인의 출신 대학 및 입학년도, 그리고 거주 지역을 밝혀주셔야 동명이인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 사무국 및 편집국 연락처
SNU Alumni Association

456 Frontage Rd., #3 Northfield IL 60093 Tel/Fax (847)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모국 · 현지 동문 소식

고광국 동문, 공대에 10만달러 기탁 50년만에 부인 김국화 동문과 함께 들러

지난 9월 30일,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서울대 공과대학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50년전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노 부부가 강태진 학장(사진 오른쪽)을 찾아와 우수한 기술인력을 키우는 데 써 달라며 10만 달러 수표를 한 장 건넨 것이다.

노 부부는 미국에서 윤활유 전문 제조 회사인 Chrysan Industries, Inc를 운영하고 있는 고광국 회장(사진 왼쪽)과 김국화 부회장이다.

이 분들은 1958년과 1960년 각각 서울대 공대 화학공학과 졸업 동문이다.

두 동문은 서울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어려운 시절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와 공부를 계속했다.

고광국 회장은 1973년 University of Houston 시스템 공학

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김국화 부회장은 1970년 University of Iowa 화학공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 회장은 박사학위 취득 후, 엑손 등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석탄 관련 대체 에너지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고 재미한국과학자협회 회장도 역임했다.

특히 1977년 윤활유 전문제조 회사인 Chrysan Industries, Inc

를 설립해 운영한 것은 미국 내 이민자 창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힌다.

이 회사는 1985년 '올해의 중소기업가상', 2001년 '올해의 기업' 등 최근까지 총 7개의 기업경영상을 수상하는 등 지난 30여년간 꾸준히 성장해 미국내에서 견실한 회사로 인정받고 있다.

고광국·김국화 동문 부부는 "지금까지 저희들은 서울대 공대에서 배운 지식과 현장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응용해왔고 미래를 위해 공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동안 여러 교수님들이 저희들에게 심어주신 자신감, 자부심, 그리고 쉬지 말고 노력하라는 가르침을 통해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받은 것을 후학들을 위해 돌려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공과대 대외협력실>

“서울대 미주센터 많이 도와주세요”

신임 미주센터 소장
장정주 교수 부임



모교 미주센터 소장에 경영대 장정주교수가 지난 달 부임했다.

장정주 교수는 미주센터 관할부서인 대외협력본부의 본부장 중책을 맡고 있으며 이번에 미주센터의 각종 시스템을 보완 정립하는 임무로 파견됐다.

장정주 교수는 경영대학 경영정보 전공으로서 모교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후 뉴욕 알바니의 RPI 경영대학 교수로 4년간 봉직하기도 했다. 현재 교수직 외에도 여러 기업에서 자문위원은 물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에서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식년, 연구년을 맞아 로스앤젤레스에 왔지만 미주센터 업무에 한국업무들까지 겹쳐 안식할 틈이 없다고. 메릴리힐스가 거처로 4학년, 6학년 두 자매와 부인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을 만나 식사하며 담소를 나누는 것을 즐겨하는데 이곳 로스앤젤레스에 서울대를 대표하는 공인으로 파견을 받으면서 책임있는 몸가짐을 해야하는 것이 조금 부담된다고 한다.

장정주 교수는 여러 동문들이 미주센터를 계속 돕고 지원해주기를 기대하며 동문회 일에도 성심껏 나서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Acropolis Times
Editor@AcropolisTimes.com
<김인종 기자>

어떤 사람이든지 순조롭고 평탄하기만 한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다. 가끔은 시련이 덮쳐서 고통 속에 허덕일 때도 있을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찾아와서 그것을 기회로 더욱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스무 한 살,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고동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고난을 극복했을 때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있었다. 아버지께서 실직하시고 빚을 지셔서 어머니랑 매일 싸우셨던 무렵에 특수목적 학교인 국제고등학교에 합격했고, 특수교육 보조원이신 어머니께서 장애인 학생에게 물어 뜯겨 크게 다치셨을 때, 반에서 중간에 머무르던 나의 성적이 수직 상승하기도 했다.

아픔을 통해 배우고, 고난을 견디면서 강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지금의 내가 겪는 고통이 내 인생의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예일 대학교에서의 교환학생 경험은 나의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겪은 첫 정신적 시련이자,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했다.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 내 삶의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게 된, 너무나 값진 경험이었다. 너무나 소중하고 뜻 깊은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미주동창회 동창 여러분들과 서울대학교 대외협력본부 본부장인 윤희원 교수님과 모든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시련, 언어

나는 어릴 때부터 영어 발음이 좋다는 칭찬을 듣고 TIPS나 TOEFL 같은 영어 시험 성적도 나쁘지 않아서 내가 영어를 참 잘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특수 전공도 영어 교육으로 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일대학교에서 첫 수업을 듣고 나자 머리가 하얘졌다. 한국에서 들었던 TOEFL의 Lecture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그보다 교



권성경(사대 지리교육과)

수님의 말하는 속도는 훨씬 빠르고 발음도 너무 달라서 수업을 듣는 것이 힘들었다. 각종 논문들과 교과서 두 권에서 매 수업마다 100페이지가 넘는 읽기 숙제가 있었는데, 영어로 그렇게 많은 양의 글을 짧은 시간 내에 읽어본 경험이 부족해 읽기 속제 분량을 다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토론에도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집에 인터넷 전화를 하고서 엉엉 울었다.

내 인생의 소중한 터닝 포인트 2009년 예일대학교 여름학기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계속 장정주 교수님은 없는 일이었다. 특히, 예일대에 계절학기 수업 들으러 간다는 말에 나를 몹시 부러워했던 친구들과 선배들, 누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동생들, 사랑하는 부모님, 나 때문에 이번엔 오지 못하게 된 다른 많은 지원자들, 그리고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얼굴도 본 적 없는 후배에게 선뜻 거액의 장학금을 주신 미주동창회 선배님들을 생각하면, 힘들수록 더 독한 의지가 생겼다. 거의 침대에서 자는 시간이 없이 늘 도서관에서 책과 자료들을 읽고, 수업 녹음한 것을 들어 가며 수업을 따라 가려고 애썼다.

2주 쯤 지났을까? 영어 강의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책을 읽는 속도도 좀

더 빨라졌다. 교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내 고민을 얘기하고 여러 조언도 들으면서 용기도 얻었다.

예일대생들의 장점을 내것으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더 잠을 아껴 가며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하루는 도서관에 처음 보는 아이들이 들어와 밤새 공부를 하기에 같이 공부하

부럽고 멋있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나의 자세와 태도를 돌아보고, 그들의 장점을 내 것으로 체득하기로 결심했다.

예일대 여름 계절학기 이전의 나는, 걸음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면을 살찌우는 것이 중요하네 종종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갔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일도 많았고 새로운 것,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내 꿈과 미래의 계획을 세우면서도 보다 안정적인 일로 편안함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주동창회 선배님들께 배우다

예일대 계절학기 수업이 종강된 후 미주동창회 이진구 회장님과 미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선배님들을 뵈게 되었다. 나보다 두 배나 세 배 가까이 더 많이 사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20-30대 청년처럼 각계 분야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서울대인으로서, 나아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후배들에게도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느끼고 배우라고 선뜻 장학금도 주시고, 미국에 와 있는 동안에도 너무나 세심하게 챙겨주신 선배님들을 보며 감사한 마음과 함께, 나도 내가 받은 것들을 나의 후배들에게 몇 배로 배풀어 주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지금의 나는 능력도, 지식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 계절 학기를 터닝 포인트로 보다 발전했고 앞으로도 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20년 후 예일대학교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그려보며 소감을 마친다.

지역 동창회 소식

워싱턴·휴스턴·시카고



워싱턴주 동창회

시니어 클럽 월례모임 가져
클래식 음악 해설과 피크닉

워싱턴 지역 동문회 Senior Club이 주최하는 일곱번째 월례 세미나 친목모임이 지난 9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Mercer Island Library (King County)에서 대자연을 만끽하는 가운데 열렸다.

이번 모임에서는 Mrs. 김계

훈이 클래식 음악 감상의 기초 지식에 관해 해설했다.

Mrs. 김이 클래식 음악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시작한 이날 음악이야기는 주요한 작곡가와 그들의 곡, 음악 형식, 악기 및 오케스트라 편성, 그리고 오페라와 성악가들의 이야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전

개됐다.

참석자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으며 Mrs. 김이 준비한 클래식 음악 소품 CD를 나누어 받았다.

이날 세미나를 마친후 참가자들은 Mercer Island Community Center 근처의 Luther Burbank Park에서 김밥, 떡, 커피와 과일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기도 했다.

식사 후에는 아름다운 호수에서 오랫동안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워싱턴 동문회 Senior Club은 매월 2째주 토요일 월례 세미나와 친목모임을 갖고 있다.



시카고 동창회(회장 노영일) 2차 이사회가 지난 10월10일 드루리 레인에서 열려 금년을 마무리하는 사업계획 인준과 차차기 회장을 인선했다.

이날 이사 부부 동반으로 약 70명이 참석한 회의에 앞서 진성수 동문이 국악 해설과 연주를 하고 만찬에 들어갔다. 진 동문은 한국 전통 판악기

의 유래와 제조회법에 대해 설명하고 크고 작은 피리 종류들을 골라 민속 음악을 연주했다.

김영호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사회에서 노영일 회장은 금년에 실시한 사업 중 지난 5월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주 동창회 평의원회 후원과 골프대회, 시카고 동문 여름 야유회 등에 대해 보고하고 “금년에

시카고 지역 동문 주소록을 일부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노영일 회장은 “시카고 동창회의 연말 총회 겸 파티가 11월 29일 드루리 레인 볼룸에서 열릴 계획”이라고 발표

하고 이사회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골든 클럽 한상호 회장은 “65세 이상 동창들의 모임인 시카고 골든 클럽이 매월 첫째 목요일 조찬 모임을 갖고 정기 세미나, 연례 친목회, 장거리 여행 등 활동을 하고 있어 미주 각 지역 동창 모임 중에서 가장 활발하다”고 전했다.

한상호 회장은 “내년 여름(8월 중순 경) 골든 클럽의 연례 장거리 여행으로 스칸디나비아와 러시아 여행 일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골든 멤버

휴스턴 동창회

장학기금 모금 음악회 성황
수준높은 음악회로 자리매김

휴스턴 동창회(회장 박종우, 공대 76)는 지난 9월26일 동문가족과 동포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고은애(음대 88) 동문의 피아노에 소프라노 신향숙, 바리톤 김정규, 테너 전승철 동문이 함께한 음악회는 수준 높은 아리아와 가곡 등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열린 음악회’ 형식으로 동문가족은 물론 지역 동포들의 열렬한 감응을 받았다.

매년 가을 개최되는 휴스턴 동창회 음악회는 동포사회에

서 보기 드문 전문 음악행사로 평가돼 왔을 뿐더러 휴스턴 동창회 이사회(이사회장 조시호, 문리대 59)의 적극 지원 아래 주요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금년 음악회 준비위원장 윤순금 동문(간호대 69)은 “이번 행사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음악회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은 물론, 동창회장단의 델러스 동창회 음악회 참석에 이어 델러스 동창회 회장단 답방도 이뤄져 서울대 동창회간 유대 강화에 음악회가 큰 몫을 했다고 말했다.



가 아니더라도 동문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회장 인선위원회의장인 정호진 회장은 “차차기 회장(2011년 회장) 후보로 김사직 동문(상대 59년 입학)을 추천키로 했다”고 보고하고 연말 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요청, 이사회의 표결을 받았다.

이영우 장학기금 관리위원장은 “1997년 동창회가 장학기

해 후보를 가려내기 어려웠으나 6명을 선정했다”고 보고했다.

노 회장은 금년의 신청자들이 훌륭한 자격을 갖추었고 경제난으로 장학금이 절실한 학생들이 많으므로 장학생 증원을 요청, 이사회 토의 끝에 2명을 더 늘하기로 결정했다.

연관 기관 소개 및 보고에서 미주 총동창회 송순영 회장은

지난 5월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 때 시카고 지역 동창회 회원들과 골든 클럽이 보내준 후원에 감사사를 표했다.

송 회장은 또 “현재 총동창회의 회비 납부 캠페인은 당초 목표 1천3명대의 절반에 달하는 약 650명이 회비를 납부한 상태”라고 밝히고 시카고 지역에서도 더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 문화회 박종희 총무는 “오는 10월 24일 개최될 동문 음악회는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것이므로 이사들의 후원과 당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카고 동창회

차차기 회장에 감사직 동문 추천
2차 이사회 장학생 8명 선발 등

금을 설정한 이후 10년간 투자이득과 모금사업을 통해 매년 6-8명에게 1천달러씩 장학금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증권시장 위기에 영향을 받았으나 현금 8천700달러를 포함, 6만6천996달러의 기금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시카고 지역 동창회 장학생 선발을 보고한 노회장은 “금년 이해적으로 15명의 장학금 신청자들이 쇄도

를

지역 동창회 소식 | 뉴욕·북가주



지난 9월30일 뉴 저지 RIVERVALE COUNTRY CLUB에서 열린 뉴욕지역 동문 추계 골프대회겸 동창회에서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뉴욕 동창회

김영덕
동문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한미통상,차세대 한인 정치력 신장 기여

뉴욕 동창회 21대 회장 및 22대 이사장을 역임한 김영덕 동문(공대 53 사진)이 고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에 수훈돼 이를 받았다.

김동문은 지난 10월5일 뉴욕 총영사관에서 열린 해외 유공동포 시상식에서 이를 수상했다.

김 동문은 미 한국
상공회의소(KOCHAM)
회장(현 고문)으로 재
임시 한미 통상 증진
에 기여한 공로로 이
처럼 추대됐다.

또한 김 동문은 동포 커뮤니티를 위해 한인 차세대 지도자 양성, 정치력 신장, 한국어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온 결과가 크게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 KOCHAM 회원사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원활한 한미 통상에 공헌한 공로가 크게 인정을 받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윤정남 전 뉴욕한인회장과 이세목 전 뉴욕한인회장이 각각 국민포장, 에스더 이 전 플러싱 한인회장과 이종숙 프린스턴 한겨레문화연구회 대표가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추계 골프대회
이준행 동문후원

지난 9월30일 70여 명의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추계 동문 골프대회가 뉴 저지 RIVERVALE COUNTRY CLUB에서 열렸다.

동창회를 겸한 이번 행사는 이준행 모교 총동창회 부회장의 후원으로(이준행 부회장은 동창회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관악대상

수상한바 있음) 상패와 부상등
푸짐한 시상이 있었으며 시상내
역은 다음과 같다.

<총무 문병하>



<Medalist> 손 경택 (농대)
 <남성부> ▶1등=서정웅(약대)
 ▶2등=계동휘(치대) ▶3등=이성길(치대) <여성부> ▶1등=전명자(간호대) ▶2등=이승자(사대)
 <장타상> ▶남=김성래(치대) ▶여=고애자(사대) <근접상> 기도석(공대) <행운상> 최구진(약대)
 <Guest상> 김만길(인하대) <단체상> >최과대학팀(김영웅 이성길 신영수)

메달리스트 중의 가운데가 이준
행 부회장 왼쪽이 한경수 제 31
대 뉴욕지역 동창회장, 오른쪽이
이날의 메달리스트 손경태 동문

달빛 속에 빠져드는 음악여행

한 주제 해설 곁들인 음대 동문 콘서트 호응

‘Veritas Chamber Ensemble’실내악단 발족

북가주 서울대 총동문회의
음대 동문들이 주최한 '이야
기와 함께 하는 음악회'가 9
월20일 마운틴뷰의Community
School of Music & Art at Firm
Center에서 개최됐다.

한 가지 주제로 해설을 결단된 이날 음악회에서서는 작곡가 박영애씨의 해설로 피아니스트 김수지·안영실·신은숙·이재진, 바이올리니스트 노희경, 성악가 김진희, 대금주자 차재현씨 등이 출연했다.

이 콘서트는 '음악으로 푸는 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달빛 정취에 흠뻑 젖는 순서를 가졌으며 200여 청중들의 갈채를 받았다.

북기주 지역 제 3회 서울 음대
동문 음악회로 모인 이번 행사
에서는 '달 이야기'를 음악에
서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에 대
해 고전파로부터 현대 음악에
이르는 다양한 연주와 해설이
있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비롯 드뷔시·슈베르트·쇼팽 등의 작품이 연주된 이날 음악회는 작곡가 안진씨의 피아노 4중주 'froggy(개구리 같은)'

이 초연때 커다란 갈채를 받기도 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행사로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음대 동문들은 이날 'Veritas Chamber Ensemble'이라는 실내악단을 새롭게 발족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연주회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임승쾌>

“앞으로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해설을 곁들인 음악회를

음악회를 마친 출연진과 복거주 동문 임원들. 앞줄 가운데가 해설자 박영애 동문, 뒷줄 맨 오른쪽은 변은희 음대 동문회장, 오른쪽에서 네번째와 다섯번째는 홍성제 회장과 황민익 이사장





선배님! 함께 해주세요!

VISION2025 모금 캠페인, 세계 최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선대님, 우리 후대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선대님들이 다져놓으신 전통을 기반으로 삼아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는 것!
비전2025 모금 캠페인은,
세계 정상으로 향한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모교와 나라에 대한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세요!

3천억 원 모금을 목표로 시작한 비전2025 캠페인,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벌써 80% 가까운 모금을 달성했습니다.
잇진 마무리는 동문 선대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선대님들의 뜨거운 모교 사랑이
바로 서울대의 경쟁력입니다.

★ 동문 집중 참여 기간 : 2009년 8월~2010년 7월

서울대학교 모금캠페인 VISION2025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

세계를 향한 힘찬 도약 Global Excellence	세계 초일류 인력 육성 대학의 국제화 글로벌 학문 육성
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 Social Impact	사회 기여의 확대 사회 정책 기능 강화
미래를 위한 변화와 준비 Foundation for Transformation	대학 혁신 지원 학문 인프라 강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재원은 서울대학교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사용됩니다.

방정기금 참여 계좌: Woori Bank Seoul National Univ. Br.
Address: San 4-2, Naksungdae-dong, Gwanak-gu,
Seoul 151-719, Korea
Account No.: 1081-000-418404
Swift Code: HVBKCRSE
문의: 82-2-880-5026, 871-8146
gift@snu.or.kr
<http://www.snu.or.kr>



3년간 2천 4백억원 모금 3천억 목표 80%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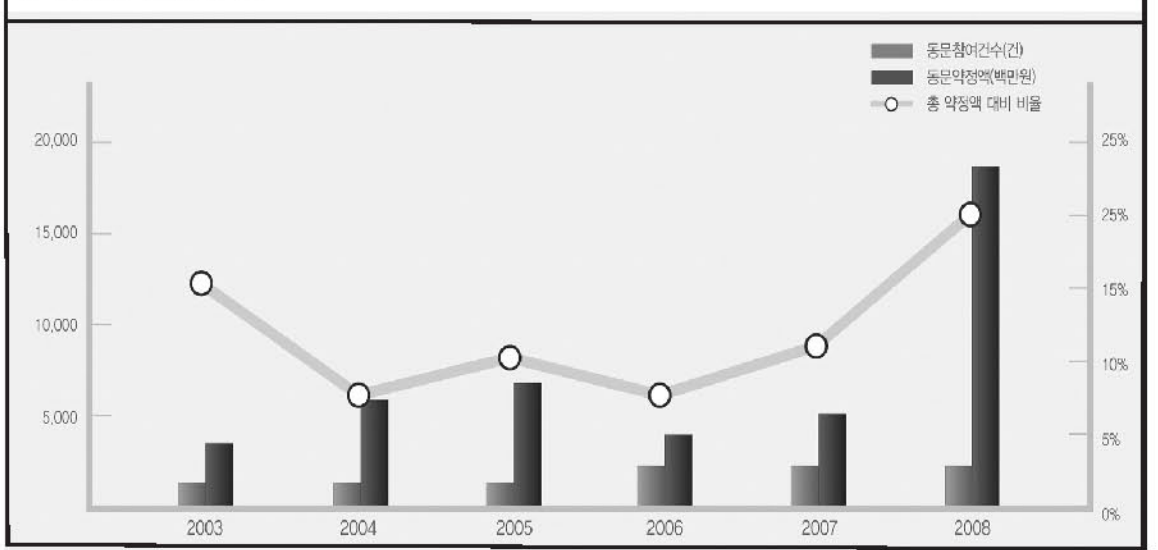
모교 이장무 총장 취임 이후 세계 10위권의 초일류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0년까지 발전기금 3천억원 모금을 목표로 모금캠페인 'VISION2025'를 추진해 왔다. 2006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캠페인 기간과 2002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캠페인을 추진하기 3년 전 기간을 비교해보면 동문, 교수, 기타관계 등 각 집단별로 발전기금 기부가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서울대 발전기금(이사장 이장무·이하 발전기금)은 "국내 최초로 실시한 집중적인 모금캠페인이 기업의 거액 기부 의존도가 컸던 대학 모금을 질적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사회 전반에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도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캠페인 시작 전과 후 기간별 약정건수를 비교해보면 동문, 교수, 학부모 할 것 없이 각 집단별로 약정건수가 골고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동문의 약정액은 71억원에서 563억원으로 캠페인 시작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 비해 무려 8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비동문 기부도 급증

이는 이용희 회장(100억원 상당 부동산 기부), 전은기·김은희 이사(이천 소재 고택과 인근 부동산 62억 상당 기부)와 같이 동문이 아닌 기부자들의 거액기부와 함께 100만원 미만의 비동문 소액 기부 건수도 급증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장무 총장은 2006년 취임하면서부터 재정확충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캠페인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이 총장은 학부모 모금캠페인

연도별 동문 모금 참여율 추이



으로 약 4억5천만원, 교수와 교직원, 학생 모금캠페인으로는 약 60억원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를 보면 2007년에 비해 약정액이 4배 가까이 증가해 동문들의 거액기부가 증가했음을 알 수

명 추산)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발전기금은 현재 1만5천명 수준의 동문 참여율을 전체 동문의 10%인 3만명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동문모금 캠페인을 집중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4년의 임기 중 3년을 보낸 이장무 총장은 "미국의 하버드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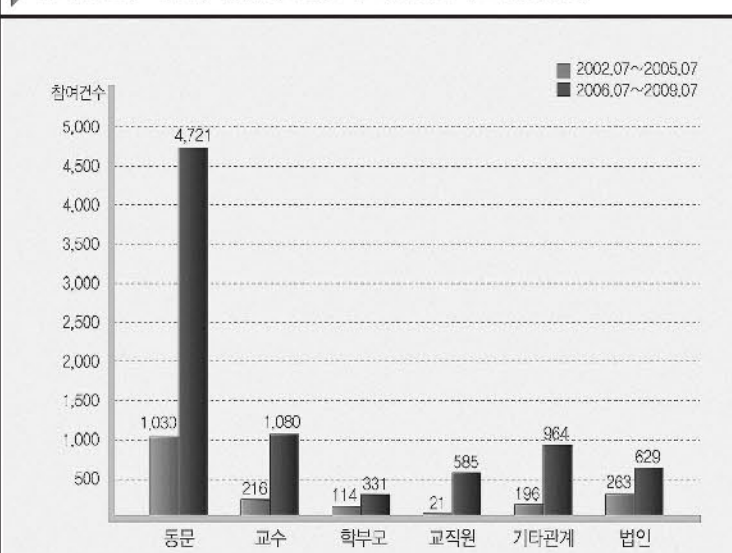
이장무 총장, 남은 임기 1년 동문 집중 참여 기간 선포 30만 졸업생 중 10%인 3만명 참여 목표로

유력인사 800여명을 초청한 '2008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대, 감사와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해 행사 당일에만 무려 110억원의 발전기금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 기부자의 개개인의 의사에 맞춘 모금사업을 설계하고, 기부자에게 보다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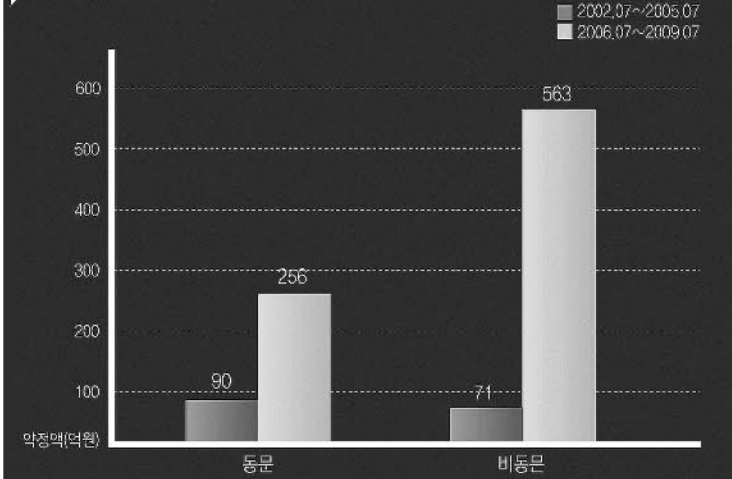
있다. 그러나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은 평균 약 30%의 졸업생이 금액에 관계없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대는 아직 전체 동문들 중 기부 참여율이 5% 수준(서울대 졸업 동문 수 30만

예일대와 같이 해외 명문 대학이 추진하는 모금캠페인을 벤치마킹해 국내 최초로 집중적인 모금캠페인을 실시하면서 동문, 비동문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분들의 서울대학교에 대한 사랑을 실감했다. 이러한 각계각층의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이제 남은 1년을 동문 집중 참여 기간으로 선포하고 목표한 총 모금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문들의 적극적인 모금 참여를 호소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캠페인 전후 기간별 약정건수 현황 비교(발전기금 재단 약정만 분석)



▶ 동문 및 비동문 약정액 증가 현황



모교 발전기금이 학교와 동문 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SNU 평생 동문사랑 프로그램(가칭)'을 시작 했다.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모교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모교는 'SNU 평생 동문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3천억원 모금을 위한 'VISION2025' 캠페인의 대미를 장식할 계획이다.

2010년 7월까지 동문 대상 모금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펼치는 한편,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동문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혜택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먼저 유산을 기부한 기부자

평생 동문사랑 프로그램 시작

문화투어를 제공 하고 있다. 또 교내에서 열리는 오페라, 전시회 등의 문화 행사에도

중 친인척이 없는 동문을 위해 장례, 49제, 제사 등을 처리주고 유족의 역할을 담당하는 '유증서비스'를 새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또 동문을 대상으로

초대하고 있다.

모교가 SNU 평생 동문사랑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은 기부금의 광고 적음에 상관없이 동문들의 참여 자체에 커다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 10위 도약 위한 인프라 구축 기부자에 건강검진, 행사초대등 혜택 유증서비스, 동문자녀 프로그램도

교양·예술 강좌를 개설하고 동문 자녀를 위한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및 학습캠프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모교는 동문을 위해 서울대병원 건강검진 및 포스코 스포츠센터 할인혜택, 캠퍼스

경제위기 속에서 동문들의 정성으로 모인 기금으로 재학생 후배가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하고, 서울대가 세계 10위의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는 등 동문들의 참여가 서울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 홍보부>

고국동문 동정

수상 · 인사 · 행사

인사

▶ 권이혁(의학4147 모교 전총장
· 의학과 명예교수· 본
회 고문)=9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세계
결핵제로운 동본부 2대
총재 취임.

▶ 김준호(법학5256 도란 캐피탈
파트너스 고문)=최근
MIT와 고려대 간
바이오분야 공동연구협
약 체결, 자
문 위원회
이사 선임.

▶ 김정국(행정6165 열린사이버
대 총장·법
대동창회장)=9월 11일
서울예고와
예원 학교
운영학교법
인 이화예
술학원 이
사장 선임.

▶ 배기동(고교인류7175 한양대
교수)=9월 1일 한국전통문화학
교 총장(차관급)에 임명.
▶ 민상기(경
제 6670 모교 경영
학과 교수)=8월 31
일 재출범
한 공직자
금관리위원
회 공동위
원장에 선임.

▶ 이창현(농생물8286 KBS 보도
본부 전 해설위원·국민대 교수)=
9월 1일 KBS 이사에 선임.
▶ 조재정(역사교육
7074 한일
관계사연구
회 회장·서
울시립대
교수)=지난
9월 17일
동북아역사
재단 제2대 이사장에 임명.

▶ 윤재석(화학교육7175 국민일
보 논설위
원·본보 논
설위원)=9
월 2일부터
10월 1일까
지 취재차
호주 방문.
또 9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1분과특
별위원회 위원에 위촉.



해설위원실장에 선임.



한국소비자원 원장에 임명.



=9월 17일 대법관에 임명.
▶ 김동욱(외교9397 미워스콘신
메디슨대 박사)=지난 9월 15일
미국 스탠포드대 포스트닥터 시
험 합격후 프리먼 스포폴리 산하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 황대준(대학원81줄 성균관대
교수)=최근 임기 4년의 유네스
코 교육정보기술연구소(IITE) 집
행이사에 임명.



▶ 이강두(행정대원7173 국민생활
체육협의회 회장)=9월 4일 세계생
활체육연맹 회장에 선출.



▶ 조창원(화학공학7377 과학기
술인공제회 이사장)=9월 8일 원
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에 기여
한 공로로 세계원자력협회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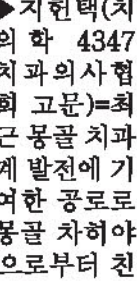
▶ 이동식(영
어 교육
7276 KBS
부산방송
총국장·본
보 논설위
원)=9월
23일 KBS
보도본부

▶ 김영신(가
정 관리
76줄 한국
소비자학
회 회장·충
남대 교
수)=9월 9
일 제12대

▶ 민일영(법
학 7478
서울고등법
원 전 부장
판사·법원
도서관 전
관장·청주
지방법원장
)=9월 17일 대법관에 임명.

▶ 김학현(법
학 7680
공정거래위
원회 정정정
책국장)=9
월 16일 공
정거래위원
회 상임위원

▶ 지현택(치
의학 4347
치과의사협
회 고문)=최
근 몽골 치과
계 발전에 기
여한 공로로
몽골 차하야
대통령으로부터 친
선훈장 수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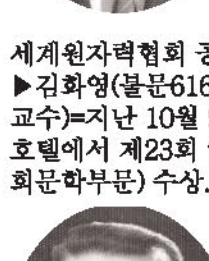
▶ 이길녀(의
학5157 정원
대 총장·본회
부회장)=9월
24일 몽골
정부로부터
훈메트 템데
그 의료훈장

수훈.
▶ 조창원(화학공학7377 과학기
술인공제회 이사장)=9월 8일 원
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에 기여
한 공로로 세계원자력협회로부

터 공로상 수상.
▶ 박재일(지리6065 한살림 회장
)=지난 9월 5일 가나인농군학교
설립자인 一家 김용기 선생을 기
리기 위해 제정한 제19회 일가
상(농업부문) 수상.



▶ 장창순(원자력공학6165 모교
명예교수·
한국원자
력 안전 기
술원 의장
)=9월 8일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 확대 기
여 공로로



▶ 김홍준(농
학 6369
수원예총
회장)=9월
15일 경기
방송이 제
정한 제5회
자랑스런
경기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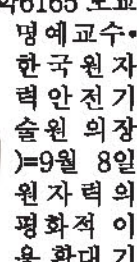
▶ 양명승(금속공학6973 한국원
자력연구원장)=9월 8일 원자력
의 평화적 이용 확대 기여 공로
로 세계원자력협회 공로상 수상.



▶ 최길선(조
선 공학
6569 현대
중공업 사
장)=지난
10월 9일
서울 롯데
호텔에서
제23회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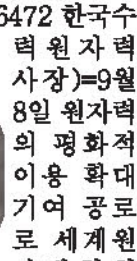
▶ 황인환(화학7781 포스텍 교수
)=10월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3회 인촌상(자연과학) 수상.

▶ 조종수(잠
사 학
6670 모교
농생명공
학부 교수
)=9월 17
일 제54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자연과학응용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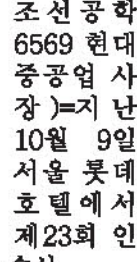


▶ 신성철(응용물리7175 한국과
학기술원 석좌교수)=지난 9월
17일 제54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자연과학기초부문) 수상.

▶ 남용(경제6976 LG전자 부회
장)=9월
22일 미국
의 저명한
공공정책
포럼인 우
드로 윌슨
국제센터
로부터 우
드로 윌슨



▶ 안상수(체육교육7175 인천광
역시장)=9
월 22일 우
드로 윌슨
국제센터
로부터 우
드로 윌슨
상(공공서
비스부문)
수상.



▶ 남홍길(화학7582 포스텍 교수
)=9월 17일 제54회 대한민국 학
술원상(자연과학기초) 수상.
▶ 이동희(AIP 30기 포스코 사장
)=9월 7일 포스코봉사단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 자립지원 기여 공
로로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자연과학응용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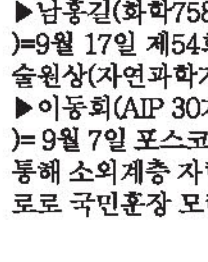
▶ 신성철(응용물리7175 한국과
학기술원 석좌교수)=지난 9월
17일 제54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자연과학기초부문) 수상.



▶ 임지순(물리7074 모교 물리천
문학부 교
수)=지난 9
월 10일 베
트남 하노
이에서 열
린 제5회 아
시아 전
산재료과
학 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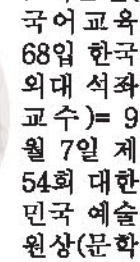


▶ 안상수(체육교육7175 인천광
역시장)=9
월 22일 우
드로 윌슨
국제센터
로부터 우
드로 윌슨
상(공공서
비스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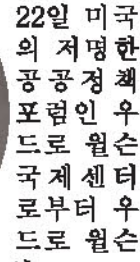


▶ 남홍길(화학7582 포스텍 교수
)=9월 17일 제54회 대한민국 학
술원상(자연과학기초) 수상.
▶ 이동희(AIP 30기 포스코 사장
)=9월 7일 포스코봉사단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 자립지원 기여 공
로로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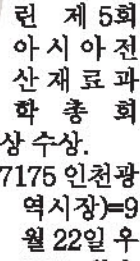
▶ 조종수(잠
사 학
6670 모교
농생명공
학부 교수
)=9월 17
일 제54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자연과학응용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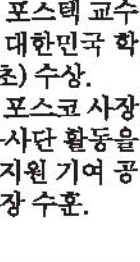
▶ 신성철(응용물리7175 한국과
학기술원 석좌교수)=지난 9월
17일 제54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자연과학기초부문) 수상.



▶ 남용(경제6976 LG전자 부회
장)=9월
22일 미국
의 저명한
공공정책
포럼인 우
드로 윌슨
국제센터
로부터 우
드로 윌슨



▶ 안상수(체육교육7175 인천광
역시장)=9
월 22일 우
드로 윌슨
국제센터
로부터 우
드로 윌슨
상(공공서
비스부문)
수상.



▶ 남홍길(화학7582 포스텍 교수
)=9월 17일 제54회 대한민국 학
술원상(자연과학기초) 수상.
▶ 이동희(AIP 30기 포스코 사장
)=9월 7일 포스코봉사단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 자립지원 기여 공
로로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여한 공로로 청조 근정훈장 수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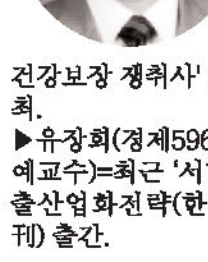
▶ 구인환(국어교육50
54국어교육
과 명예교수
·문학과문
학교육연구
소장)=8월
24일한국크
리스천문학



▶ 권혁승(상학5357 한국경제전
략연구원
이사장)=9
월 11일 강릉
시 헨다리
마을에 고
향과 어머
니를 그리
는 '愚母亭'
공원 조



▶ 이광찬(사회5862 NGO한국노
년유권자
연맹 부총
재·동국대
겸임교수
)=9월 19
일 서울
백범김구
기념관에
서 '국민



▶ 유장희(경제5963 이화여대 명
예교수)=최근 '서비스분야의 수
출산업화전략(한국경제연구원
刊) 출간.



장 평생동지회 창립 10주년 기념
연찬회 개최.

▶ 이광찬(사회5862 NGO한국노
년유권자
연맹 부총
재·동국대
겸임교수
)=9월 19
일 서울
백범김구
기념관에
서 '국민

장 평생동지회 창립 10주년 기념
연찬회 개최.

▶ 유장희(경제5963 이화여대 명
예교수)=최근 '서비스분야의 수
출산업화전략(한국경제연구원
刊) 출간.

명복을 빕니다

- ▶ 최정식(경제45 - 53 상주탁주합동 대표)=9월 6일 별세(82세)
- ▶ 백태호(응용미술46 - 51 前이화여대 교수)=9월 22일 별세(84세)
- ▶ 정경수(치의학46 - 50 前동신치과의원장)=9월 14일 별세(83세)
- ▶ 장기선(사회48 - 52 前국회의원)=9월 5일 별세(83세)
- ▶ 김성구(의학58 - 62 前마산결핵병원장)=9월 24일 별세(79세)
- ▶ 노장우(행정60 - 64 바로닷컴 회장)=9월 19일 별세(66세)
- ▶ 오정희(화학61 - 65 세종대 명예교수)=9월 3일 별세(67세)
- ▶ 진수일(의학61 - 67 서울의료원 원장)=9월 17일 별세(67세)
- ▶ 황보영(사범83 - 87 변호사)=9월 15일 별세(45세)
- ▶ 나기성(HPM 20기 대한기독교의사회장)=9월 9일 별세(86세)

동창회비 및 업소록 광고비 납부자 현황

2009년 7월 1일 미주 동창회 10대 회장단이 출범한 이후에 발송한 회비 협조 서신에 7백50여 명의 동문들께서 응답하신 데 감사드리며 회장단이 시카고에서 접수한 회비와 각종 기부금 납부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1년 회비 외에 2년치 회비 또는 기부금이나 광고료를 내신 동문의 명단이 기금 구분에 따라 반복되어 게재됩니다. 회비 납부서에 출신 대학과 입학년도를 기재하지 않고 동문 데이터 베이스에도 수록되지 않은 동문, 그리고 부부 동문의 경우는 출신 대학 정보가 자동 인출되지 않기 때문에 출신 대학 정보가 누락된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보완하겠습니다. 이 명단은 2009년 10월 20일까지 접수된 납부자를 입력한 것이며 그 이후 도착하는 우편의 납부자 명단이 누락된 것은 다음 달에 보완하겠습니다.

특별 후원금

송순영 (문리대 52입)	30,300
시카고 골든클럽	1,000
아시아나 항공	2,000

평의원회비
연간 \$100

2008~2009
역대 회장: 이용락 (6대 회장)
총신이사: 서영석·오홍조·서치원·
조용원

평의원:

김창수·박명일·이영우·
박연희·박 숙·김정주·조대현·
이정재·박홍우·김지영·김동석·
방석훈·김은종·정임원·지인수·
김재영·성주경·이영현·신정현·
하상원·남세현·한경수·윤영하·
김난기·최민갑·김재훈·이승찬·
김학성·배규영

2009~2010
이석호·이장우

계 \$3,600

관악 후원회비

AZ	유의영	1,000	박국종	200	IL		
지영환	200	이병준 (의대 57입)	1,000	이병무	200	이용익 (공대 49입)	1,000
CA		이승훈 (치대 86입)	200	이화숙	200	강창만 (의대 58)입)	200
권대원 (대학원 59입)	200	임낙균 (약대 64입)	300	전희택(의대 59입)	200	김운태 (의대 63 입)	1,000
권영조 (의대 57입)	300	임용오	3,000	박종수	150	임현재/최경화(의대)	100
김낙구	25	장 준	200	FL		조중행/박숙(의대)	1,000
김동산	200	장진성	200	전용상 (공대 46입)	200	박국종	200
김동석	200	전호신	225	GA		박승원 (공대 50 입)	500
김영석	200	정원훈	200	김용건	200	이병무 (사대 59 입)	200
김종표	200	조재길	200	문종현	25		
나정자 (간호대 70입)	200	현원영	400				
		황만익	200				

다음 페이지에 계속

서울대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납부 양식

성명:(한글)		(영문)		작성일:	년	월	일
				성별:			
단과대:	학과:	대학원:		입학 년도:	졸업 년도:		
현주소:							
전주소:							
전화/집:		Cell:	E-mail:				

회계년도	동창회비 (구독료)	관악 후원금				종신 이사비	모교발전기금 (백만원불기금)	지부 본담금
2009. 7. 1.- 2010. 6. 30.	\$75	\$200	\$200+	\$500	\$1,000	\$3,000 ☐		
2010. 7. 1.- 2011. 6. 30.	\$75	\$200	\$200+	\$500	\$1,000			

동창회보 광고 신청

일반광고{아래 가격은 1개월 기준입니다. 광고 규격중 선택 ()}							업소특 리스팅
Color \$1,500 B/W \$750	\$400 전면 w240mm h330mm	\$250 1/2H w240mm h165mm	\$250 1/3H w240mm h110mm	\$250 1/3V w120mm h220mm	\$200 1/4H w240mm h82.5mm	\$150 1/6V w120mm h110mm	2009. 7. 1.- 2010. 6. 30 \$120 ☐
	1	2	3	4	5	6	2010. 7. 1.- 2011. 6. 30 \$120 ☐

* 지불방법 (Check or Credit Card)

Amount: \$	Check: Pay to the order of SNUA-USA
Card: Visa ☐ Master Card ☐	Card Holder Name: _____
Card No.: _____	Security Code: _____ Exp. Date: _____
Signature: _____	Address: _____

회비 납부 및 후원금 기증

•우측 회비/후원금 양식을
카피하시고 작성하신 후
Mail 또는 Fax해 주시거나
직접 이 종이에 작성하신 후
오셔서 아래 주소로 Check와 함께
Mail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heck를 보내실 때 우측 양식을
함께 보내주셔야 회보의 납부자
명단에 정확히 기재됩니다.

Payable to SNUA-USA

보내실 곳:
SNU Alumni Association
456 Frontage Road, #3
Northfield, IL 60093

연락처:
Tel / Fax: (847)441-0011
Email:

동참회비 및 업소록 광고비 납부자 현황

과학 후원회비

앞 페이지에서 계속

IL	정승규(공대 60입)	200	권철수	200	최희웅	200	이상강(의대 73입)	200	VA
김태기 (의대 62입)	100	조대현(공대 57입)	200	강길종(약대 70입)	200	허선행		김기봉(공대 63입)	200
강창만 (의대 58입)	400	조중행,박속	1,000			이정림(상대 65 입)	200	박용결	225
구정희 (의대 59입)	1,000	진관보(의대 72입)	200	MI				박평일	25
김영호 (의대 71입)	200	최희수, 이순자	200	유효명	25	NY		이규섭 (상대 68입)	200
김윤범 (의대 52입)	200	한재은(의대 59입)	500	차대양	200	김명승 (상대 65입)	200	이내원(사대 58입)	200
김윤태 (의대 63입)	1,000					권영대	200	이영목 (공대 59입)	500
김재환 (사대 72입)	200	IN				김영배	200	정원자	200
김정주 (문 60입)	200	김연화	225	김태환 (문 60입)	200	김용연	200		
노영일·지예자(의)	200	MA		왕규현	200	박준희 (인문대 86입)	200	WA	
박영규 (농 57입)	200	김제호	200			성기호	200	김성열 (치대 61입)	200
반용균 (의대 53입)	200	MD				이근수	25		
서상현(의대 65입)	125	김창호	25	NJ		이준행 (공대48입)	3,000	TX	
윤효정(사대)	25	이광선(의대 59입)	200	기도석	200	최구진	200	명인성	200
이광선(의대 59입)	200	이태영	200	박경원	200	최한용(농대 59입)	200	조시호	200
이승자(사대 60입)	200	이항열	25	박승원	500			황의찬	200
이윤모(농대 57입)	200	이희규	200	신정윤 (공대 60 입)	200	OK			
임현재(의대 59입)	500			윤갑석 (상대 83 입)	200	김경숙 (생활과대 75입)	200		
장기남·김승주	200			정준영 (문리 67입)	100				

종신 이사회비

인명특대금

동문 업소특 광고비

이석호 (공대 66입)	100	김정빈 (공대 66입) 45 박승원 45 NJ 김대언 45 HI 윤상철 (약대47입) 45 MI 남상용 (공대 53입) 50
조용원 (문리대 66입)	1,500	
이장우 (문리대 72입)	100	

CA 김광철 (약대 65 입) 120 신대식 (상대 60 입) 120 IL 이훈우 (치대 54 입) 120	NJ 이정림 (상대 66 입) 120 OR 김상순 120 NY 김영배 (미대 입) 120 조대영 (공대 62입) 120 한영수 (의대 62입) 120
---	--

회비 (회보 구독료 포함) 2년분 납부하신 분은

AK 윤제중 (농대 55입) AZ 지영환 (의대 61입) CA 김석홍 김정빈 노재민 박종수(문리 60)	현원영 서치원 (공대 69입) 박종성 (법대 53입) 조태목 (사대 80입) 김익창 (의대 51입) 강희광(공대 57입) 이성웅 (음대 58입) 정 황 (공대 64입) FL 오석일 (의대)	GA 김용건 (문리 48입) IL 김재환 노영일·지예자 최혜숙 이소희 (의대 61입) 임현재 (의대 59입) 정 호 (공대 62입)	최희필 (의대 53입) MD 박명영 (의대 66입) MI 유효명 25 남상용 (공대 52입) MN 김권식 (공대 61입)	NE 김명자 (간호 55입) NJ 이분휘 (문리 54입) 김한중 (의대 56입) 한인섭 박성일 (상대 58입) 박태호 (처대 66입)	NY 양금자 (미대 69입) 황분하 (수의 76입) 노용면 (의대 49입) 박수안 (의대 59입) 이희경 (의대 55입) 한승신 OH 송용덕 (의대 57입)	OR 최근영 (법대 63입) PA 김용국 (의대 58입) 김주진 (법대 55입) 전희곤 TX 조시호 (문리 59입)	VA 김기봉 (음대 87입) 이석형 135 ONT,CANADA 이승환 (농대 55입)
--	--	---	---	---	---	--	---

회비 (회보 구독료 포함) 1년분 \$75 납부하신 분은

AZ		김영철 [○] (공대 55입)		김영한 (법대 54 입)		김현호 (문리대 59입)		박종식 (의대 48 입)		신정연 (미대 61 입)		윤홍기 (의대 58 입)	
김영철 [○]	(공대 55입)	김정신 (사대 70 입)	김계윤 (의대 57 입)	김용체 (법대 54 입)	김희재 (사대 66 입)	박창선 (공대 55 입)	신희정 (미대)	이선 (의대 42 입)	윤홍기	(의대 58 입)			
		김광은 (음대 56 입)	김광철 (사대 47 입)	김원경 (음대)	나두섭 (의대 66 입)	박취서 (약대 60 입)	안병일 (의대 63 입)	이강원 (공대 66 입)	이선	(의대 58 입)			
		김광철 (사대 47 입)	김유감 (이)(약대 49 입)	김원경 (음대)	노명호 (의대 74 입)	박태호 (치대 66 입)	안현중 (음대 56 입)	이경수 (수의대 73 입)	이강원	(공대 66 입)			
		김교복 (농대 63 입)	김은희 ()	김유감 (이)(약대 49 입)	노상규 (공대 60 입)	방명진 (공대 73 입)	양광주 (대학원 58 입)	이근철 (상대 56 입)	이경수	(수의대 73 입)			
		김교복 (농대 63 입)	김은희 ()	김은희 ()	문병하 (법대 51 입)	백성용 (사대 52 입)	양승문 (공대 65 입)	이근호 (공대 46 입)	이근철	(상대 56 입)			
		김교복 (농대 63 입)	김은희 ()	김은희 ()	문인일 (공대 51 입)	서승열 (공대 59 입)	양은석 (음대 70 입)	이기제 (사대 52 입)	이근호	(공대 46 입)			
		김교복 (농대 63 입)	김은희 ()	김은희 ()	민병환 (약대 68 입)	성낙호 (치대 65 입)	양창효 (상대 54 입)	이길자 (음대 57 입)	이근호	(공대 46 입)			
		김교복 (농대 63 입)	김은희 ()	김은희 ()	민병환 (약대 68 입)	송남수 (미대 입)	양태준 (상대 56 입)	이남정 (음대 57 입)	이길자	(음대 57 입)			
		김교복 (농대 63 입)	김은희 ()	김은희 ()	민병환 (약대 68 입)	송은철 (치대 70 입)	염동해 (농대 74 입)	이명규 (의대 60 입)	이남정	(음대 57 입)			
		김교복 (농대 63 입)	김은희 ()	김은희 ()	박국종 (법대 57 입)	송준철 (농대 65 입)	오양숙 (간호대 60 입)	이명희 (의대 60 입)	이명규	(의대 60 입)			
		김교복 (농대 63 입)	김은희 ()	김은희 ()	박현 (상대)	신대식 () 52 입)	우옥자 (간호대 60 입)	이병무 (법대 57 입)	이명희	(의대 60 입)			
		김교복 (농대 63 입)	김은희 ()	김은희 ()	박동훈 ()	신대식 () 52 입)	유석홍 (상대 61 입)	이승훈 (공대 66 입)	이병무	(법대 57 입)			
		김교복 (농대 63 입)	김은희 ()	김은희 ()	박성민 (의대 58 입)	신동국 (수의대 76 입)	유석홍 (상대 61 입)	이승훈 (공대 66 입)	이승훈	(공대 66 입)			
		김교복 (농대 63 입)	김은희 ()	김은희 ()	박영옥 (의대 58 입)	신영규 (의대 57 입)	유의영 (문리대 56 입)	이양구 (상대 57 입)	이양구	(상대 57 입)			
		김교복 (농대 63 입)	김은희 ()	김은희 ()	박원준 (공대 53 입)	신영규 (치대 64 입)	유현순 (상대 60 입)	이영송 (치대 65 입)	이영송	(치대 65 입)			
		김교복 (농대 63 입)	김은희 ()	김은희 ()	박제인 (약대 60 입)	신용규 ()	윤석철 (상대 60 입)						
		김교복 (농대 63 입)	김은희 ()	김은희 ()	박종수 (공대 60 입)	신우현 (치대 67 입)	윤장희 (상대 83 입)						

[다음 페이지에 계속]

회비 (회보 구독료 포함) 1년분 \$75 납부하신 분은

CA[계속]

이영신 (간호대 77입)
이우근 (음대 48 입)
이은희 (음대 65 입)
이재룡 (공대 71 입)
이정옥 (생과대 71입)
이종묘 (간호대69입)
이준식 (의대 61 입)
이준호 (공대 81 입)
이중열 (공대 69 입)
이혜영 (의대 57 입)
이혜란 (의대 76 입)
임정란 (의대 69 입)
장준 (인문대85입)
장경구 (미대 67 입)
장기창 (공대 56 입)
장동석 (문리대 66입)
장진성 (약대 66 입)
전낙관 (사대 60 입)
전병린 (공대 54 입)
전호선 (수의대67입)
전화자 (음대 60 입)
정규남 (공대 52 입)
정동구 (공대 57 입)
정두호 (공대 64 입)
정복근 (사대 69 입)
정수만 (의대 66 입)
정원훈 (상대 38 입)
정인택(보건대학원64)
정제형 (약대 55 입)
정진수 (공대 56 입)
정현진 (법대 63 입)
조계길 (사대 61 입)
조중용 (문리대 50입)
최희섭 (공대 85 입)
차기민 (간호대 69입)
최희원 (의대 61 입)
최경자 (간호대 59입)
최덕순 (상대 53 입)
최승문 (간호대 69입)
최왕옥 (공대 69입)
최인용 (문리대 65입)
최태근 (법대 48입)
최홍수 (자과대 87입)
하기환 (공대 66 입)
하상진 (대학원 90입)
한중철 (의대 68 입)
홍병익 (공대 68 입)
황동하 (의대 65 입)
황만익 (사대 59 입)
황정식 (문리 55입)
구무옥 (의대 49입)
김광한 (공대 62입)
김준일 (문리 46입)
박정화 (공대 55입)
윤용길 (의대 41입)
이정열 (상대 53입)
이재진 (문리 55입)
전희택 (의대 58입)
최복영 (사대 56입)
탁예숙 (의대 67입)
한태호 (인문대 75입)

김영옥 (문리 61입)

CO

정화용 (사대 61 입)

CT

김내도 (공대 62 입)

FL

신상재 (수의대 59입)
안창현 (의대 57 입)
양찬기 (의대 58 입)
전웅상 (공대 46 입)
한기빈 (공대 52 입)
한성수 (의대 56입)
문상규 (문리 60입)
임무평 (의대 54 입)

GA

김영서 (상대 54 입)
문종현 (수의대60입)
오경호 (법대 56입)
박천기 (상대 51입)
안승덕 (농대 59입)
정경근 (의대 59입)

HI

림양수 (의대 66 입)
윤상철 (의대 66 입)

IL

강영국 (수의대 67입)
강창만 (의대 58 입)
계훈택 (의대 55 입)
고병철 (의대 59입)
구정희 (의대 57 입)
김갑중 (의대 58 입)
김선철 (의대 71 입)
김영호 (공대 58 입)
김용우 (공대 73입)
김용범 (의대 54 입)
김정주 (문리대 60입)
김현주 (문리대 61입)
문탁영 (문리대 55입)
박숙 (의대 64 입)
박영규 (농대 57입)
박인숙 (미대 69 입)
반용균 (의대 53 입)
배영섭 (의대 54입)
송재현 (치대 68 입)
오명자 (간호대 60입)
윤효정 (의대 59 입)
이광선 (문리대 58입)
이덕수 (상대 52 입)
이명희 (사대 60 입)
이승자 (농대 57 입)
이윤모 (농대 57 입)
이정일 (문리대 55입)
이진주 (치대 54 입)
이춘우 (미대 54입)
임이섭 (문리 62입)
장기남 (공대 60입)
장윤일 (문리대 53입)
장은숙 (문리대 53입)

정광훈 (공대 60 입)
정승규 (공대 60 입)
정지희 (문리대 59입)
조철 (공대 49 입)
조대현 (공대 57입)
조중행 (의대 63입)
진관보 (의대 72 입)
진보린 (약대 56 입)
최길용 (문리대 57입)
최순분 (간호대 57입)
최애옥 (사대 58 입)
최희수 (문리대 67입)
한희일 (공대 62 입)
함성택 (문리대 55입)
곽영로 (수의 72입)
이용락 (공대 48입)
장시경 (약대 58입)

IN

김정숙 (약대 51 입)
송순영 (의대 54 입)
임영신 (의대 54 입)
김연화 (의대 54 입)

KS

임하진 (의대 79 입)

MA

김병국 (공대 71 입)
김은한 (의대 60 입)
김제호 (상대 56 입)
박기순 (간호대 70입)
박종진 (의대 58 입)
윤은상 (상대 66 입)
이재용 (의대 93 입)
이희규 (공대 69 입)

MD

강창옥 (의대 55 입)
권철수 (의대 68 입)
김창호 (법대 56 입)
남옥현 (경영대 84입)
노광옥 (치대 63 입)
도상철 (의대 67 입)
박찬호 (간호대 64입)
소숙영 (공대 59 입)
신구용 (의대 52 입)
신상균 (의대 67 입)
오인환 (약대 55 입)
오혜현 (사대 72 입)
이유세 (의대 55 입)
이재송 (치대 74 입)
이준영 (법대 60 입)
이태영 (법대 57 입)
임종식 (미대 57 입)
임필순 (의대 54 입)
조세진 (의대 65 입)
강길종 (약대 69입)
정요셉 (사대 70입)

ME

채도경 (의대 59 입)

MI

권순환 (공대 60 입)

김우신 (의대 60 입)
김원경 (의대 89 입)
김정일 (의대 57 입)
유효명 (의대 61 입)
육태식 (의대 54 입)
장철 (의대 85 입)
장병호 (의대 66 입)
차대양 (공대 55 입)
채무원 (의대 59 입)
최공창 (의대 55 입)
하계현 (공대 64 입)
이민우 (의대 61입)
이종기 (농대 55입)

MN

김태환 (의대 58 입)
남세현 (공대 67 입)
변우진 (인문대 81입)
성욱진 (치대 87 입)
송창원 (문리대 53입)
왕규현 (의대 56 입)
주한수 (수의대 62입)

MS

김진호 (의대 60입)

NC

정길표 (의대 49 입)
조동림 (문리대 75입)
홍훈 (문리대 75입)

NE

이상문

NJ

곽상준 (약대 55입)
기도석 (공대 67 입)
김대연 (의대 59 입)
김동진 (사대 71 입)
김명철 (공대 80 입)
김세환 (공대 85 입)
김양호 (의대 51 입)
김영애 (사대 56 입)
김영철 (약대 53 입)
김은섭 (의대 60 입)
김훈일 (미대 66 입)
박경원 (의대 55 입)
박대규 (공대 57 입)
박성호 (약대 72 입)
박은규 (사대 52 입)
박익수 (간호대 47입)
배명애 (의대 60 입)
송기인 (문리대 71입)
유호근 (공대 53 입)
윤갑석 (사대 44 입)
윤순철 (법대 58 입)
이유찬 (의대 58 입)
이재원 (사대 52 입)
이종석 (의대 54 입)
정순기 (문리대 69입)
주선후 (의대 43 입)
최원로 (의대 58 입)
최준희 (문리대61입)
최희웅 (의대 57 입)
추제옥 (약대 52 입)
탁명양 (의대 58 입)
허선행 (의대 58 입)

강석권 (공대 65입)
고영수 (미대 57입)
곽선철 (공대 61입)
이경림 (상대 64 입)
이능석 (의대 57입)
현건철 (공대 55입)
김영진 (약대 67입)
서정용 (약대 63입)
손광호 (의대 59입)
정준영 (문리 68입)

NV

최영식 (법대 59 입)

NY

강영선 (공대 50 입)
곽승용 (의대 65 입)
권영대 (공대 69 입)
김문경 (약대 61 입)
김석식 (의대 58 입)
김석자 (음대 61 입)
김영배 (공대 78 입)
김용연 (문리대63입)
김우영 (상대 60 입)
김해암 (의대 53 입)
민발식 (의대 60 입)
박순영 (법대 56 입)
박정식 (사대 59 입)
박현성 (약대 60 입)
서경애 (음대 67 입)
서상철 (의대 49 입)
성기호 (약대 57 입)
송영순 & 유영호 일

신남철 (의대 61 입)
양세관(경영대원66입)
오인환 (문리대63입)
유광현 (의대 58 입)
유재철 (공대 65 입)
유정자 (간호대63입)
윤정옥 (약대 50 입)
이근수 (상대 64 입)
이대연 (약대 65 입)
이대영 (문리대64입)
이성수 (공대 56 입)
이영애 (농대 59 입)
이정은 (의대 58 입)
이주정 (상대 68 입)
이준행 (의대 61 입)
이혜청 (약대 61 입)
이현호 (공대 58 입)
이희자 (간호대70입)
임공세 (의대 61 입)
임대목 (의대 58 입)
장영식 (법대 59 입)
전병삼 (약대 58 입)
정인식 (상대 58 입)
정진선 (간호대82입)
정택수 (문리대46입)
조숙자 (간호대87입)
조광환 (치대 65 입)
천병수 (공대 70 입)
최구진 (약대 54 입)
최일단 (미대 55 입)
최태식 (의대 69 입)
최형무 (법대 69 입)
한승원 (미대 60 입)
한용진 (미대 55 입)
한용호 (법대 48 입)
홍선경 (의대 58 입)

계동희 (치대 67입)
라홍재 (상대 62입)
안재현 (의대57입)
윤영섭 (약대 61입)
장기선 (공대 61입)
조대영 (농대 58입)
최한용 (의대 61입)
한영수 (상대 66입)

OH

김한교 (의대 55 입)
명인재 (의대 63 입)
손기용 (의대 56 입)
송용재 (의대 56 입)
이범세 (의대 60 입)
이영웅 (의대 59 입)
정길화 (의대 62입)
채혜숙 (의대 53입)
서운석 (의대 53입)
이원호 (의대 53입)

OK

김정숙 (생활과대 74입)
이상강 (의대 72입)

OR

김상만 (음대 46 입)
김상순 (상대 67 입)
김영자 (간호대69입)
성성모 (사대 67 입)
최근영 (사대 60 입)

PA

강영배 (수의대59입)
김국간 (치대 64 입)
김영우 (공대 55 입)
박영한 (약대 68 입)
서중민 (공대 64 입)
손재옥 (생과대77입)
송영두 (의대 56 입)
신선자 (치대 56 입)
오진석 (음대 57 입)
윤정나 (공대 56 입)
이규호 (공대 95 입)
이봉재 (미대 55 입)
이지훈 (의대 61 입)
장성환 (상대 61 입)
정종택 (의대 68 입)
조영일 (의대 67입)
심완섭 (음대 60줄)
조영호 (의대 58입)
양운택 (문리 59입)

RI

오세자 (인문대71입)

TN

윤준식 (의대 48입)

TX

김기준 (공대 60 입)
김영옥 (의대 60 입)
김영창 (의대 90 입)
김의신 (의대 60 입)
김현정 (음대 50 입)
명인성 (공대 50 입)

박민자 (미대 60 입)
박석규 (농대 73 입)
유길선 (농대 73 입)
유세만 & 박유미 일
이규진 (약대 60 입)
이길영 (문리대59입)
정철철 (문리대57입)
조진태 (상대 60 입)
최성호 (의대 530 입)
최용천 (사대 57 입)
탁순덕 (사대 760 입)
곽노환 (문리 48입)
김진만 (공대 57입)

UT

김인기 (문리 58입)
배유환 (공대 73입)

VA

고무환 (법대 570 입)
곽근영 (사대 510 입)
김세량 (공대 620 입)
남광순 (음대 640 입)
박경훈 (상대 55 입)
박용길 (약대 560 입)
박일영 (문리대590입)
박정일 (농대 690 입)
박형순 (의대 540 입)
서희열 (의대 550 입)
신용계 (문리대740입)
윤기일 (약대 600 입)
이형모 (의대 450 입)
정계훈 (농대 620 입)
최동현 (문리대500입)
최완호 (상대 560 입)
최준호 (공대 600 입)
이내원 (사대 59 입)

WA

구본영 (공대 65입)
김영일 (문리대49)
김윤국 (상대 68입)
박홍 (공대 74입)
박종수 (법대 58입)
변종혜 (공대 72입)
유성희 (사대 58입)
이대원 (공대 63입)
이순모 (의대 63입)
이종성 (음대 60입)
황재규 (음대 60입)
홍계인 (음대 60입)

WI

장홍 (문리대619)
장세관 (의대 57입)
전장호 (공대 55) WI
김영화 (문리 65입)

WV

정약준 (의 입)

지역 미상

김희웅 (약대 74입)
곽영로 (수의 73입)
이관 (공대 55입)

인명록은 뉴욕의 제 9대 회장단에서 취급합니다

구입 신청과 대금 납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SNU-USA, 131 West 35th St. (New York Golf Buldg.), New York, NY 10001
Tel (212) 563-9641, Fax (212) 563-9647 Email: snuausa@Gmail.com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문의
(224) 548-2148

CA

남가주

건축/컨설팅

The Unipac Communities(M)
홍정일(공대 59) (818) 990-5080
3126-BE. Scotts View Orange CA 92869

손학식 건축사무소
손학식(공대 61) (310) 394-0705
1424 4th St., #700 Santa Monica CA 90401

JND Engineering
박진득(농대 67) (310) 394-0705
14700 Fi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63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영동해(농대 74) (951) 657-8200
23135 Betty Road Perris CA 92570

공인회계사

CHA, STANLEY, CPA
차기민(공대 85) (213) 739-5700
3350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Jung Mo Park & Co.
박정모(문리대 66) (213) 383-4005
3255 WILSHIRE BLVD# 1700 Los Angeles CA 90010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Suite#300
Los Angeles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강경수 회계사무소
강경수(법대 58) (213) 383-4005
3255 Wilshire Blvd. #1700 Los Angeles CA 90010

Jung Mo Park, CPA
박인회(간호대 66) (213) 383-4005
3255 Wilshire Blvd. #1700 Los Angeles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윤경민 공인회계사

* 윤경민(법대 55) (213) 388-6622
695 S. Vermont Ave. #1350 Los Angeles CA 90005

윤재호 공인회계사

* 윤재호(상대 76) (310) 787-9100
1010 Crenshaw Blvd. Suite 250
Torrance CA 90501

이강우 공인회계사
이강우(인문대 76)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os Angeles CA 90005

장준공인회계사
장 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Ace Business Services, Inc.
조만연(상대 58) (818) 994-7365
14617 Victory Blvd., #2 Van Nuys CA 91411

금융/재정설계

한인헤드럴 크레딧유니온
이영일(문리대 53) (213) 368-9000
3700 Wilshire Blvd., #750 Los Angeles CA 90010

Mirae Bank
박광순(상대 63) (213) 427-7951
3255 Wilshire Blvd., #1100 L.A. CA 90010

AXA Advisors
원영배(미대 74) (213) 251-1797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The Westar Group
윤장희(상대 83) (626) 400-7074
1613 Chelsea Road #119 San Marino CA 91108

방코 포폴라 시민은행
김영덕(법대 58) (323) 731-1475
3360 W. Olympic Blvd. #1 Los Angeles CA 90019

리테일러

리테일러/패션
Fashion World
박의순(상대 53) (714) 491-0706
1440 S. Anaheim Blvd., #A-08 Anaheim CA 92805

리테일러/생수
Living Water
박국중(법대 53) (909) 874-4966
2828 W. Rialto CA 92326

리테일러/보석상
세계보석
김광철(음대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리테일러/소모품
Wescost Inc.
김철환(공대 57) (213) 384-2245
33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리테일러/리퀘스토아
HK Pegasus Inc.
이건영(문리대 71) (310) 676-1615
13007 Pralrie Ave. Hawthorne CA 90250

리테일러/패션

한남제인

리테일러/상패
*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Sharon's Fashion
신정식(상대 64) (626) 449-1712
453 E. Orange Grove Blvd., Pasadena CA 91104

리테일러/식품점
Sammy Mart
라희상(문리대 64) (213) 623-7617
934 S. Los Angeles St., #J Los Angeles CA 90015

리테일러/정원가구점
Ace Outdoor Power Equip
이근원(공대 67) (951) 735-9980

385 E. Grand blvd. Corona CA 92879

무역

무역/수출입
CKL
김순길(문리대 61) (213) 488-1750
110E. 9th St., #A404 Los Angeles CA 90079

무역/선적
SY shipping Corporation
김종표(법대 58) (562) 467-5455
670 Oak Tree St. Fullerton CA 90701

무역/건축자재
AMSCO Corp.
신영수(상대 70) (562) 407-2121
12611 Hiddencreek Way, #K Cerritos CA 90703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영진(공대 73) (714) 871-5300
1221 North Patt St. Anaheim CA 92801

무역/전자제품
Panarex Inc.
김원탁(공대 65) (818) 768-5161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

무역/안과용 기기 및 약품
Youngin(USA) Inc.
이영수(상대 60) (626) 448-3039
11100 Valley Blvd. #125, El Monte CA 91731

Martial Supply Kens Trading Co., Inc.
이근철(상대 65) (323) 871-8004
73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변호사/법률사무소

김지영 변호사
김지영(사대 69) (213) 532-3600
3700 Wilshire Blvd., #61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Anna K. Oh
* 신경란(음대 68) (916) 922-6987
P.O. Box 396 Carmichael CA 95609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35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법률그룹
한태호(인문대 75) (213) 639-2900
699 Wilshire Blvd., #860 Los Angeles CA 90010

부동산/중개업

럭키부동산 관리회사
김희재(사대 66) (213) 736-5872
3200 Wilshire Blvd., #1507 Los Angeles CA 90010

Keller Williams Realty
유경상(농대 58) (661) 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Pyramid Lake RV Resort
이재권(법대 56)
45100 Copco Ave Gorman CA 93243

James Lee 부동산
이종모(간호대 69) (714) 635-4011
1203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JJ Park Enterprises
박종수(수의대 58) (310) 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성민경(공대 65) (562) 924-1411
18012 Pioneer Blvd., #A Artesia CA 90701

Citi Property Management Co.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비영리법인

한미교육연구원
차종환(사대 54) (213) 380-7155
975 S. Vermont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청운장학회
오재인(치대 33) (626) 284-9782
1420 Abajo Dr. Monterey Park CA 91754

한미 담노협회

* 김용일(보건대학원 65) (213) 386-7933
266 S. Harvard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상당/재정설계

AXA Advisors LLC
* 정임현(간호대 72)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

서비스/염색가공
Jade Textile, Inc.
임예건(공대 69) (213) 744-0808
33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서비스/통역
Better Comm
정연진(인문대 81) (213) 387-1166
3700 Wilshire Blvd., #490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Pest Control

K-One Termite, Inc
* 심명섭(문리대 65) (213) 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서비스/자동차
Vermont Automobile
권기상(경영대학원 72)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서비스/시큐리티
Eastman Security
이익덕(신문대학원 70) (626) 336-0055
15358 Valley Bl. City of Landustry CA 91746

서비스/실내디자인
D-Space Interior Design
김옥권(미대 76) (949) 273-8034
69 Bluejay, Irvine CA 92604

서비스/족보
Craft Net
권대원(경영대학원 59) (213) 386-5809
3800 Wilshire Blvd., #1130 Los Angeles CA 90010

수의사/동물병원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호선(수의대 74)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Angels Care Animal Hospital
하병래(수의대 67)◦ (909) 982-2888
659 E. 15th St., Suite#Q Upland CA 91786

AnimAidPet Hospital
승원표(수의대 73)◦ (714) 897-2429
7080 Katella Ave. Stanton CA 90680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대 76)◦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 64)◦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VCA Mission Ani. Hosp.
박찬식(수의대 73)◦ (626) 289-3643
9356 Bigby St Downey CA 90241

Valley Lyons Pet Hosp.
권태삼(수의대 73)◦ (661) 254-6680
24882 Apple St Santa Clara CA 91321

Humane Animal Hospital
* 이병국(수의대 64) (909) 829-8840
9257 Sierra Ave Fontana CA 92335

Roswin Pet Hospital
김 영(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West Highland Dog & Cat Hospital
이경수(수의대 73) ◦ (909) 887-5021
1795 West Highland San Bernardino CA 92411

정인덕동물병원
정인덕(보건대학원 64) (714)840-4658
5904 Warner Ave. #B Huntington Beach CA 92649

숙박업/호텔

Best Western Friday Harbor Suite
장동석(문리대 66) ◦ (360) 378-3601
680 Spring St. Friday Harbor WA 98250

스토어/하드웨어

Ace Lawn Mower & Saw
이근원(공대 67) ◦ (909) 735-9980
E. Grand Blvd./ona CA 9279

엔지니어링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엔지니어링/환경공학
Maurison Environmental Consulting
이중희(공대 50)◦ (310) 763-0055
P.O.Box 18254 Long Beach CA 90006

예술/조각

Chaing's Art Studio
장정용(미대 64) ◦ (213) 687-3748
816 E. 4th Place Los Angeles CA 90013

음식점/한식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법대 50) ◦ (213) 382-6660
3580 Wilshire Blvd., #1230 Los Angeles CA 90010

운송/유통/통관/원자재

Exxel Express
정복근 (사대 69) (310) 515-5758
550 E. Carson Plaza Dr. #217
Carson, CA 90746

태평양 상사
하상원(대학원 90)◦ (310) 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90220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광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A.P.W.
자동차 부품
* 서동영(사대 60) (323) 770-0751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은행

Commonwealth Business Bank
최운화(상대 78) ◦ (323) 988-3005
5055 Wilshire Blvd., #840 Los Angeles CA 90036

Center Bank 행장
유재환(상대 67)◦ (213) 386-2222
3435 Wilshire Blvd., Suite700 Los Angeles CA 90010

Hanmi Bank 이사
박창규(약대 59) ◦ (323) 734-7385
3660 Wilshire Bl. Ph-A Los Angeles CA 90010

의료/약국

****나성약국**
임낙균(약대 64)`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os Angeles, CA 90006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Western Pharmacy
유창호(약대 74) (323) 465-3112
1075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Sunrise Pharmacy (213) 413-6800
1931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6
PCH Medical Pharmacy
(562) 591-7655
306 E. Pacific Coast HWY #101 Long Beach CA 90806

RX Plus Pharmacy
임동호(약대 55) ◦ (714) 776-1020
1425 E. Lincoln Ave. #B Anahelm CA 92805

Village Pharmacy
박제인(약대 60)◦ (213) 749-2346
313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7

Ararat Plaza Pharmacy
이명일(약대 72) ◦ (818) 637-2177
1248 S. Glendale Ave., #M Glendale CA 91204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의료/치과

가나다 치과
김대우(치대 62)◦ (310) 329-7600
15435 S WESTERN AVE #101 Gardena CA 90249

김재중 치과
김재중(치대 62)◦ (623) 681-0800
17476 E Collma Rowland heights CA 91748

O Jin Kwon, DDS
* 권오진(치대 61) (310) 532-5232
15632 S NORMANDIE AVE Gardena CA 90247

권중규 치과그룹
* 권중규(치대 63) (213) 385-1325
401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배윤범 치과
* 배윤범(치대 69) (213) 385-1233
3540 Wilshire Blvd STE 212 Los Angeles CA 90010

오길평 치과
오길평(치대 63)◦ (323) 734-2285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6

오홍조 치과
** 오홍조(치대 56) (213) 382-8205
286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영송(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우원섭 치과
우원섭(치대 65)◦ (213) 487-3622
3566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이효경 치과
이효경(치대 63) ◦ (562) 924-3334
17334 Pioneer Bl. Artesia CA 90701

이장길 치과
* 이장길(치대 63) (323) 581-0100
5914 Pacific Blvd. Huntington Park CA 90255

장기열 치과
* 장기열(치대 55) (232) 930-1744
402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조규석 치과
조규석(치대 65) ◦ (818) 368-6635
17029 Chatsworth St. # 201 Granada Hills CA 91344

Il Jin Bak, DDS
박일진(치대 54)◦ (818) 349-3136
8949 Reseda Blvd #116 Northridge CA 91324

이병무 보철치과
이병무(치대 70) (213)383-7500
3663 W. 6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Your Choi's Dental
최중환(치대 70) ◦ (323) 585-3332
313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Jo's Family Dentistry
조상하(치대 64) ◦ (562) 927-1112
8209 Eastern Ave Bell Gardens CA 90201

정종훈 치과
정종훈(치대 75) ◦ (323) 268-8308
2111 1/2 Cesar Chavez Ave. #1 Los Angeles CA 90033

윤희성 치과
윤희성(치대 65) ◦ (661) 327-8619
2115 D. St. Bakersfield CA 93301

송은섭 치과
송은섭(치대 70)◦ (818) 957-7878
2777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신우천 치과
신우천(치대 67)◦ (310) 530-5455
23632 Crenshaw BI Torrance CA 90505
박재호 치과
박재호(치대 54) ◦ (213) 487-5961
3123 W Olympic Blvd.Los Angeles CA 90006

김인권 치과
김인권(치대 72)◦ (213) 739-8641
3663 W. 6th St.#300 Los Angeles CA 90020

늘웃는 치과
이범모(치대 74) ◦ (323) 734-3710
966 S. Western Ave.#207 Los Angeles CA 90006

권중건 교정치과
권중건(치대 65) ◦ (818) 952-6362
3700 Wilshire Blvd. suit 400 LA CA 90010

이강훈 치과
이강훈(치대 67)◦ (626) 912-8557
1661 S. Nogales St. #C Rowland Heights CA 91748

성락호 치과
성락호(치대 65) :(310)518-3522
414 W. Pacific Coast Hwy Wilmington CA 90744

박태호 치과
박태호(치대 66) :(323)265-1505
5017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임희영 치과
임희영(치대 69)◦ (562)866-6914
9951 Artesia Pl. Bellflower CA 90706

의료/내과/전문의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정수만 암내과
정수만(의대 66) ◦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이미정 소아과
이미정(의대 57) ◦ (213) 252-0036
520 S.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0

최동욱 산부인과
최동욱(의대 59)◦ (909) 620-1976
1818 N. Orange Grove #203 Pomona CA 91767

Sang H. Park, M.D.
박상호(의대 65) ◦ (323) 730-0200
94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이원택 신경정신과
이원택(의대 65) ◦ (562) 591-7377
1745 Pacific Ave. Long Beach CA 90813

전희택 신경외과
전희택(의대 58)◦ (818) 347-3287
2301 Sherman Place West Hills CA 91307

의료/이비인후과
Inland Ear, Head & Neck Clinic
정태건(농대 66) ◦ (961) 352-7920
3975 Jackson St. #202 Riverside CA 92503

New Wilshire Medical Clinic
최영수(의대 47) ◦ (213) 739-2226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napa Pain Clinic
조형기(의대 86) ◦ (213) 386-8275
3545 Wilshire Blvd. suite#109 Los Angeles CA 90010

Key Global Asso.
하계현(공대 64) ◦ (248) 613-0993
1435 Tacoma Dr. Rochester Hills MI 48306

공인회계사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상대 63) ◦ (618) 257-1788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N 62221

금융/투자

Green Realty, Inc.
김정렬(수의 71) ◦ (847) 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리서치/기술개발

**Heat Transfer
R&D, LTD**



이윤락(공대 48) ◦ (847) 577-5987
1010 W. Lonnquist Mt. Prospect IL 60056

리테일러

Modern Gifts & Dundee Shiseido
지명식(사대 65) ◦ (847) 559-1005
3121 Dundee Rd. Northbrook IL 60062

변호사/법률사무소

이흥미 변호사
이흥미(약대 63) ◦ (773) 427-8870
40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6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김봉현(법대 55) ◦ (773) 583-3558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부동산/중개업

로알 부동산
엄우광(문리 61) ◦ (847) 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IT Realty, Inc.
송성준(법대 76) ◦ (847) 398-3100
83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김동희(공대 66) ◦ (630) 207-2515
24 Connecord Drive Oak Brook IL 60523

상담/재정설계

셀리 전 공인재정상담가
김현숙(간호 79) ◦ (847) 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93

수의사/동물병원

Munster Animal Hospital
한원종(수의 83) ◦ (219) 924-0101
10421 Calum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nwood Ani. Hosp.
곽영로(수의 72) ◦ (847) 677-7070
6431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712

Justice Animal Clinic
강영국(수의 67) ◦ (708) 599-4800
8507 S. Roberts Rd. Justice IL 60458

의료/내과/전문의

심기창 내과
심기창(문리 68) ◦ (773) 478-9250
3447 W. Lawrence Ave., Chicago IL 60625

이한중 심장내과
이한중(의대 59) ◦ (248) 569-0122
22255 Greenfield Rd. #231 Southfield MI 48075

윤효운 심장내과 C. A. V. A
윤효운(의대 63) ◦ (248) 844-1010
645 Barclay Circle Rochester Hills MI 48307

의료/산부인과
이민자 산부인과
이민자(의대 63) ◦ (847) 991-1400
800 e. Northwest HWY Palatin IL 60067

의료/소아과
Rosa H. Choi, MD, SC
최혜숙(의대 53) ◦ (708) 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의료/방사선과(암치료)
Genesys Hurley Cancer Institute
오동환(의대 65) ◦ (810) 762-8490
302 Kensington Ave. Flint MI 48503

의료/외과

Elgin Cardiac Sugery, S.C.

임현재(의대 59) (847) 695-1620
조중행(의대 63) (847) 695-1620
915 Center St. #1003 Elgin IL 60120

Suh Sang Hun, MDPC
서상현(의대 65) ◦ (773) 522-5886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Dixie Hospital
노영일(의대 62) ◦ (708) 709-6030
333 Dixie Highway Chicago

의료/치과

서승환 치과
서승환(치대 57) ◦ (847) 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심재희 치과
이재희(치대 68) ◦ (618) 239-6151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N 62221

윤석한 치과
윤석한(치대 58) ◦ (847) 965-6878
5830 Dempster St. Morton Grove IL 60053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대 61) ◦ (847) 675-0882
64 Old Richard Shopping Center, #426
Skokie IL 60077

* 이춘우 치과

이춘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조희경 치과
조희경(치대 80) ◦ (847) 562-1252
332 Skokie Valley Rd. #222 Highland Park IL 60035

학원/문화학원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Illinois
황성택(문리 55) ◦ (847) 508-1190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065

MA

뉴잉글랜드

부동산/중개업

JK Realty Trust
김제호(상대 56) ◦ (617) 277-7455
POBox 696 Brookville MA 02446

수의사/동물병원

*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소(수의 61) (978) 851-3636
1088 Main St. Tewksbury MA 01876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래(수의 62) ◦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의료/내과/전문의

강길원 산부인과
강길원(의대 59) ◦ (978) 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6

제조업/제약

Ipsen Pharmaceutical Co.
김선혁(약대 59) ◦ (508) 478-0144
27 Maple St. Milford MA 01757

MI

미시간

교육기관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진숙영(문리 70) ◦ (248) 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부동산/중개업

남 부동산관리주식회사
남상용(공대 52) ◦ (734) 662-0351
2689 Balmoral Ct. Ann Arbor MI 48103

의료/내과/전문의

St. Joseph Mercy Hosp.
이영모(의대 53) ◦ (248) 858-3490
44405 Woodward Ave. Pontiac MI 48341

Chul Chang, MD
장 철(의대 65) ◦ (269) 427-5304
P.O.Box 250 Bangor MI 49013

Kent Pathology Lab
김계윤(의대 57) ◦ (616) 458-1255
2650 Horizon Dr. SE #B Grand Rapids MI 49546

MN

미네소타

HDM Inc.
강영화(공대 65) ◦ (651) 730-6205
570 Hale Ave ST. Paul MN 55128



NJ-NY

뉴욕/뉴저지

건강
Jang Soo Furnishing, Inc.
박대규(사대 55) ◦ (201) 945-7879
321 Broad Ave., #B-3 Ridgefield NJ 07657

건축/설계

김세환 건축설계
김세환(공대 65) ◦ (732) 549-1616
3851 Park Ave. Edison NJ 08820

공인회계사

Edward CM Kang CPA

* 강홍무(사대 60) (212) 594-9034
Empire State- building #820
New York NY 10018

Wha Sam Kong, CPA

* 공화삼(농대 64) (201) 868-2255
6135 Bergenline Ave. #2 W.
New York NJ 07093

세원 회계법인

* 김영승(상대 65) (212) 213-4151
1270 Broadway Suite# 608
New York NY 10001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Young Sik OH, CPA
오영식(법대 72) ◦ (201) 569-1177
440 Sylvan Ave.Englewood Cliffs NJ 07632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Kevin Lee & Co.
이근수(상대 64) ◦ (212) 686-0115
1201 Broadway #707 New York NY 10001

Wesley Y. Chung, CPA
정일화(상대 55) ◦ (212) 736-6590
1350 Broadway #606 New York NY 10018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 New York NY 10016

Deloitte & Touch
김영휘(법대 80) ◦ (212) 436-2587
2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Symbol Power Inc.
김원영(미대 81) ◦ (212) 967-0874
990 6th Ave. #6M New York NY 10018

금융/재정설계

Genko Financial
유호근(문리 71) ◦ (201) 945-4692
21 Grand Ave., #605 Pallsades Park NJ 07650

E Mart Corp.
김학수(상대 65) ◦ (718) 720-4498
195 P.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02

리테일러

Sun Furniture
정은영(음대 59) (718) 224-3737
250-21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Windsor Wine Shop
이규태(법대 57) (212) 779-4422
3rd Ave. New York NY 10016

SK Group, Inc.
우상영 (상대 55) (973) 815-1234
55 Central Ave. Passaic, NJ 07055

Athleisure Foot, Inc
박영태(상대 63) (973) 622-1624
744 Broad St. Newark NJ 07102

리테일러/뷰티서플라이
Broadway Jewelry
곽선선(공대 61) (973) 345-1745
72 Broadway Paterson NJ 07505

****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Caps Unlimited
전병수(공대 70) : (718)293-7711
17 East 170th St. Bronx NY 10452

무역

무역/의류
Evershine Mt. Corp.
김우영(상대 60)
350 5th Ave. New York NY 10118

무역/원자재
코람무역회사
곽상준(약대 55) (973) 790-3302
P.O. Box 352Totowa NJ 07512

무역/전기용품
EAC Trading, Inc.
윤정옥(약대 50) (516) 466-5678
98 Cutt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변호사/법률사무소

Feldman Weinstein, LLP
김용학(법대 70) (212) 869-7000
420 Lexington Ave., Suite 2620 New York NY 10170

서장석 변호사
서장석(사회과학대 91) (201) 363-0010
460 Bergen Blvd., #206 Palisades Park NJ 07650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718) 463-3131

연봉원 변호사

* 연봉원(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Sang Chin Yom, Attorney at law
염상진(상대 77) (201) 461-1616
1580 Lamoine Ave., #9 Fort Lee NJ 07024

조대영 변호사

*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최형무 법률사무소
최형무(법대 69) (718) 463-3500
36-09 Main St., Suite #208 Flushing NY 11354

Joon Hee Park, Attorney
박준희(인문대 86) : (212)869-3200
104 West 40th St. New York NY 10018

Cosmo Realty

* 이재택(법대 60) (201) 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부동산/중개업

다니엘게일 소더비 부동산
이영숙(간호 56) (516) 484-1800
1400 Old Northern Blvd. Roslyn NY 11576

Re/max Diamond
류재은(미대 71) (732) 742-1919
1199 Amboy Ave. Edison NJ 08837

뉴스타 부동산
송용길(신대원 69) (718) 224-3308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Ji Jay Corp. (부동산/관리)
최한용(농대 58) (718) 268-2553
23 Briarfield Dr. Lake Success NY 11020

비영리법인

FICC USA, Inc.
황문하(수의 76) (631) 736-0099
864 Middle Country Rd. Selden NY 11784

XenoBiotic Lab. Inc.
김혜숙(생활과학대 73) (609) 779-2295
107 Morgan Lane Plainsboro NJ 08536

상담/재정설계

송기뢰 기술상담
송기뢰(행대원 62) (718) 357-8812
45-22 194 St. Flushing 11358

FICC USA, Inc.
황문하(수의 76) (631)736-0099
664 Middle Country Rd. Selden NY 11784

IBECONS Int'l
김제철(공대 58) (718) 650-0486
1228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0

서비스

****KARLAN Service, Inc.**

김영배(공대 78) (973) 278-1015
189 East 7th St.
Paterson, NJ 07524

서비스/여행업

동아여행사
정영희(사대 62) (212) 563-3351
Empire State Bldg. 350 5th Ave. Suit 2206, New York NY 10118

**** 아리랑여행사**

정영희 (사대 62) (212) 563-3351
Empire State Bldg.
350 5th Ave. Suite
2206 New York, NY 10118

서비스/클리너

C & K Dry Cleaner
강진자(간호 60) (914) 698-1919
965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Kim's Dutch Cleaners, Inc
김규화(상대 63) (856) 596-5992
750 Route 70, Eveshamplaza Mallon NJ 08003

Best Cleaner
김훈일(공대 60)
750 Route 70, Eveshamplaza Mallon NJ 08003

서비스/잠금장치

Alco Lock & Safe, Inc.
정인식(상대 58) (212) 867-3380
405 Lexington Ave. Crysler Building Arcade NY 10174

수의사/동물병원

Ridgefield Park 동물병원
김기택(수의 81) (201) 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스포츠

보고타 골프센터
김남기(사대 63) (201) 489-2400
30 Cross St. Bogota NJ 07603

언론/인쇄

Radio Korea NY
권영대(공대 69) (718) 358-9300
136-56 39th Ave #4F Flushing NY 11354

Korea Broadcasting System
황상무(사회과학대 83) (212) 246-7709
1776 Broadway #2005 New York NY 10019

B & P Group, Inc.
이석구(문리 69) (201) 585-5063
138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예술/갤러리

Nahrah Culture Center
김광현(미대 57) (201) 944-1047
160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요식업

Cheong Hae Restaurant
오치주(농대 67) (718) 460-0500
160-2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운송/유통/통관

America Int'l Line, Inc.
윤병하(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Honey Bee Hauling
우한호(문리 58) (718) 762-6512
138-35 Elder Ave.#15J Flushing NY 11355

Penn-Craft Corp (건강기능 식품)
손완배(농대 70) (201) 947-6644
340 Tremont Ave. Fort Lee NJ 07024

Linkwell Corp. (도매)
유우영(공대 66) (845) 624-7460
55 Old Turnpike Rd., #208 Nanuet NY 10954

Young One Fashion (의류도매)
원영일(공대 58) (212) 685-4850
1201 Broadway New York NY 10001

의료/내과/전문의

Ob & Gynecology
손광호(의대 59) (718) 963-8533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6

Young Il Lee, M.D.P.A.
이영일(의대 60) (732) 574-0055
2263 St. George Ave. Rahway NJ 07065

Dai M. Lim, M.D.P.C.
임대목(의대 58) (518) 393-7434
1370 Union St. Schenectady NY 12308

민병덕 내과
민병덕(의대 53) (718) 507-1888
77-08 Broadway Elmhurst NY 11373

방병기 심장내과
방병기(의대 67) (609) 799-4644
9 Schalks Crossing Rd., Suite 720 Plainshore NJ 08536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4)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732) 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의료/마취과
Hudson Pain Management
강창홍(의대 67) (201) 894-4786
464 Hudson Terrace #G1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레이저 전문의료원
최태식(의대 69) (718)281-1100
222-1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마취의원
추재욱(의대 57) (201) 569-6541
136 Hollywood Ave. Englewood Cliff NJ 07632

정진우 비뇨기과

* 정진우(의대 66) (718) 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김연철 산부인과
김연철(의대 66) (718) 353-5990
41-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 899-4600
40-10 70th St. #1st Fl. Woodside NY 11377

Bernards Professional Center
김한중(의대 56) (908) 766-4660
150 N. Finley Ave. Basking Ridge NJ 07920

St. James Hospital
김옥현(의대 59) (973) 465-2677
155 Jefferson St. Ndwark NJ 07105

Lee Allergy
이혁엽(의대 73) (201) 568-3800
385 Sylvan Av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Thoracic and Cardiovasc. Asso. Inc.
김자익(의대 69) (304) 343-7576
2335 Chesterfield Ave. #300 Charleston WV 25304

Personal Touch PM & R. LLC.
조규용(의대 60) (516) 783-1577
250 Pettit Ave. #1 Bellmore NY 11710

미주 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0대 회장및 임원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명예회장: 이진구(농)

제10대 회장: 송순영(문)

차기회장: 김은중(상)

관악후원회장: 구경희(의)
관악후원회 고문 이준행 (?)

모교 발전기금위원회:
오인석(법) 이병준(상) 방은호(약) 윤정옥(약) 이정립(상) 서동영(사)
김태환(의)

회칙위원회: 오인환(문) 진금섭(약) 이용락(공) 서중민(공) 한재은(의)
신웅남 (농) 김지영(사)

상임이사회: 이문휘(문) 윤상래(수) 정홍택(상) 김세중(공) 곽상준(약)
김종율(사) 최수용(상) 최철용(농) 진봉일(공) 성기호(약) 양순우(법)
정인식(상) 김영덕(공) 한창섭(문) 오인석(법) 권태전(사) 노용면(의)
임건식(음) 신웅남(농) 강연식(사) 이내원(사)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김정주(문)
총무국장: 이승자(사)
재무국장: 박 숙(의)
특별간사: 조대현(공) 정 호(공) 장기남(문) 최순용(문)
감 사: 박영규(농) 김재영(농)

회보 임원 및 위원

발행인: 송순영(문)
주 필: 이윤모(농)
편집위원: 고병철(법) 이승자(사) 조대현(공) 윤효정(사)
편집장: 이기준

논설 위원

고병철(CH) 김일훈(CH) 김창수(NY) 김재환(WA) 장석정(CH)
남채홍(NY) 백 순(DC) 오강남 (BC) 오기창(CH) 육길원(CH)
윤상래(MA) 이석구(NY) 이청광(LA) 임승패(SF) 정홍택(PA)
한창섭(NY)

<이상 논설위원은 10월 20일 현재 불사를 허락하신 동문들이며
앞으로 논설위원 수락을 하시는 동문들의 명단을 추가로 게재합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 지역 지부

남가주	회장	제영혜(가정 71입) 714-809-4481 yvonnelee52@msn.com	오하이오	회장	최민갑(공대 57입) 614-436-5780 jchol613@gmail.com
	차기회장	김은중(상대 59입) ekim@pcr-ims.com		차기회장	송원길(의대 58입) 614-378-2918
북가주	회장	홍성제(치대 69입) 408-504-9358 sjhong@pacbell.net	하와이	회장	이상협(상대 82입) 808-956-8590 leesang@hawaii.edu
	차기회장	임승패(문리 66입) 510-381-1054 sk0425@hotmail.com		차기회장	전수진(농대 89입) 614-581-5875 soojin@hawaii.edu
샌디에이고	회장	박우선(공대 57입) 858-603-6878 haljopark@cox.net	하를랜드	회장	김명자 (문리 62입) (402) 493-2284 jtkohr@msn.com
	차기회장	민영기(치대 61입) 818-515-3217 ykmindds@aol.com		차기회장	배규영(사대 68입) 913-402-8477 kybae8533@gmail.com
뉴욕	회장	신웅남(농대 70입) 718-463-3131 peters1027@aol.com	플로리다	회장	전일수(상대 50입) 305-606-1982 eugenechun@hotmail.com
	차기회장	한경수(문리 57입) 516-742-8483 jsh1206@aol.com		차기회장	박창익(농대 64입)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워싱턴DC	회장	윤경의(공대 57입) 703-542-7212 keyoon96@yahoo.com	유타	회장	배유한(공대 73입) 801-474-1945 you.bae@utah.edu
	차기회장	정상목(약대83입) 240-346-1043 dreamwork2001@hotmail.com		차기회장	박찬호(자연 81입) 801-440-0034 chanho.park@fairchildsemi.com
시카고	회장	노영일(의대 62입) 708-226-0345 youngilro@comcast.net	캐롤라이나	회장	김기현(문리 51입) 510-655-3239 gideon@80square.com
	차기회장	이영우(문리 66입) 630-655-2320 ykiminc@aol.com		차기회장	정량수(의대 60입) 828-442-8711 drchung3@yahoo.com
필라델피아	회장	손재옥(가정77입) 267-736-2992 jhaah@timhaahs.com	로키마운틴스	회장	강창운(의대 72입) 720-344-2815 mydreamis@comcast.net
	차기회장	전방남(상대 73입) 215-360-4138 jeonbana@drexel.edu		차기회장	전남인(사대 입) 719-592-0037 jhonjeun@hotmail.com
휴스턴	회장	박홍우(공대 76입) 713-443-5310 henrypp@msn.com	애리조나	회장	고광선(공대 57입) 425-488-6326 ncyangkoh@gmail.com
	차기회장	김순금(간호 69입) 713-828-5909 sibokkim@yahoo.com		차기회장	오덕겸(의대 58입) jindori@cox.net
댈러스	회장	이희덕(농대 67입) 214-727-4997 hdlee4@naver.com	오레곤	회장	김기린(사대 75입)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차기회장	이석호(문대 78입) 972-475-1184		차기회장	김진영(공대 72입) 503-686-038 jin.y.kim@intel.com
조지아	회장	이영진(공대 76입) 404-579-8282 youngjinlee999@yahoo.com	알래스카	회장	장근유(미대 58입) 907-748-0067
	차기회장	김경호(공대 74입) 770-814-0618 jhkim@noabank.com		차기회장	배석연(농대 58입) 907-561-0818
뉴잉글랜드	회장	윤상래(수의 62입) 978-343-3049 yoonville@aol.com	캐나다 온타리오	회장	이승찬(농대 55입) 647-246-2405 schanlee@rogers.com
	차기회장			차기회장	김학성(농대 74입) 905-873-1989 hakskim@email.com
미네소타	회장	남세현(공대 67입) 651-285-9715 ssnam@mmm.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오강남(문리 61입) 604-461-5178 soft103@hotmail.com
	차기회장	김영석(공대 73입) 612-750-0885 ysk495@gmail.com		차기회장	이현(공대 79입) 604-454-4424 jameshyunlee@hotmail.com
워싱턴주	회장	김재훈(공대 72입) 425-681-4253 jkim1@ieee.org	캐나다 앨버타	회장	이근홍(농대 65입) 403-554-4830 leekhken@hotmail.com
	차기회장	신창범(법대 73입) 206-949-787 changshin@eschelon.com		차기회장	조윤희(자연 82입) 403-620-8261 dalhousiedq@hotmail.com

서울대학교 미주동문 ‘인명록’ 12년 만에 새롭게 발간

SNUAUSA(발전기금 위원회)는 작은 기부금을 받고 미주동문 ‘인명록’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동문님의 기부금은 모교를 돕는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55(미국거주동문)를 책 만드는 비용과 우송료로 생각하시고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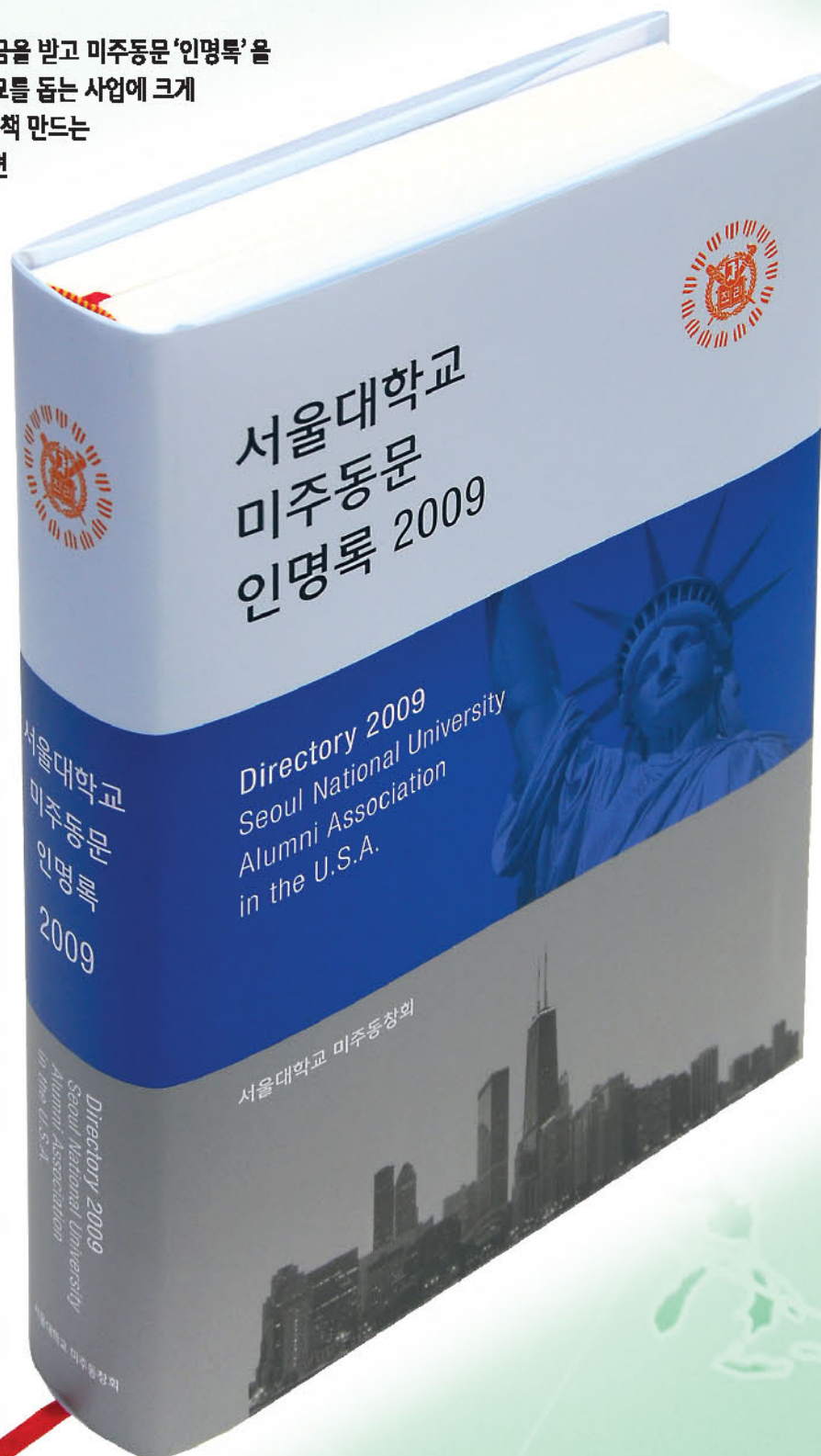
모교를 돕는 사업은 모든 동문의 작은 정성과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동문님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기다립니다.

7,605명 수록

내용

*인명편, *직업편, *색인편
미주동창회 사업 및 연례행사
총동창회 관악회
역대 미주동창회장
종신이사 명단
미주 26지역 동창회 회장단
미주 지역 동창회 회원 현황
제16, 17, 18대 평의원의 참가동문
미주동창회 회칙
총동창회 단대별 동문 현황
모국 단과대학 동창회 사무처 주소
서울대 동창회 해외지부



좌측 이미지는 실제 인명록 사이즈의 60%입니다.
(실제 사이즈: 7 5/8" w, 10 1/2" h, 2" thickness)

기부금- 미국 거주동문: \$55(우송료 포함)
캐나다 거주동문: 온타리오 동창회로 구입 문의
(문의: 이승찬 회장, Tel: 647.346.2405)

지불방법- Check, Pay to the order of SNUAUSA

발송시작- 10월 말

보내실 곳- SNUAUSA(발전기금 위원회)
131 West 35th St.,(New York Golf Bldg.) New York, NY 10001
Tel: (917)514-1939, (917)494-0223
E-mail: snuausa@gmail.com